

碩 士 學 位 論 文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指導教授 廉 美 炅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社會敎育專攻

高 範 錫

2004년 8 월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指導教授 廉 美 炆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6 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高 範 錫

高範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년 7월 일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고 범 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염 미 경

이 논문은 제주유배인들의 유배생활이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배문화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사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공간적으로는 제주도에 한정시켰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문헌자료인데, 김정희를 중심으로 하고 김윤식과 박영효의 유배생활을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유배인들 중에서 김정희를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유배인보다 비교적 긴 유배생활을 했고, 이후 제주지역 유배문화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김윤식과 박영효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그들이 김정희로 시작되는 개화사상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조선시대 유배제도가 끝나는 시기에 유배은 인물들이며 이들이 제주 근대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제주유배인들의 개화교학활동은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조선왕조를 통하여 많은 인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이들이 제주문화에 미친 영향도 컸다. 학문과 지덕을 겸비한 정치가와 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유배됨으로써 지방민 자제들이 그들에게 사사(私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 면에서 조선시대에 유배지로 정착되면서 지역인사들과 유배인들의 교류로 유교문화유산이 제주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어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적 발전 방향으로의 계승이 부족하였고 교육이나 특성화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학습 실태를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유배문화를 포함한 유교문화자료를 많이 개발하고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토사학습자료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유배문화관 건립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제주유배문화가 제주문화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시기별로 제주지역의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형성된 유교문화와 유배문화의 관련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대상과 방법	2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쟁점	6
1. 유배문화의 개념	6
2. 유배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8
III. 제주유배문화의 형성	14
1. 김정희의 유배생활	14
2. 김윤식의 유배생활	27
3. 박영호의 유배생활	29
IV.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영향과 학습자료화	34
1. 유배인의 유배생활의 교육적 영향	34
2.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자료화	36
V.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표	54
영문초록	60

<표 목차>

<표 1>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유배지 배속표	9
<표 2> 향토사학습 수업모형	42
<표 3> 제주유배문화 현장체험학습 연구방법	46
<표 4> 현장체험학습의 절차	46
<표 5> 현장체험학습 교수·학습지도안	48

<부표 목차>

<부표 1> 향토사학습 본시수업 모형	54
<부표 2>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7차시	55
<부표 3>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8차시	56
<부표 4>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9차시	57
<부표 5>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20차시	58
<부표 6>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55차시	59

I. 서 론

1. 문제제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른바 절해고도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제주도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최고형(最高刑)을 받은 유형수(流刑囚)들이 유배 온 최악의 유적지(流謫地)였다. 그것은 유배인을 다룰 때 원악지배(遠惡地配)보다 도배(島配)를 더 중죄인시 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고려 때 원나라에 점령된 후 100여 년간 원·명 등 이민족의 유형지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원나라가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4월에 도적 100여명과 동왕 3년(1277)에 죄인 73명을 제주도에 유배시켰던 일, 명나라가 우왕(禡王) 14년(1388) 12월에 귀순한 원나라의 달달친왕(達達親王) 등 80여호를 모두 제주도에 이주시켰던 일, 그리고 공양왕(恭讓王) 4년(1392) 3월에 원나라의 양왕(梁王) 자손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를 제주도에 안치시켰던 일 등이 그것이다.

타 민족의 유형지이기도 했던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유배지가 되었는데, 한 때는 조선 성종(成宗) 때 도범자를 제주에 정역(定役) 유배하였던 바 우마도살(牛馬盜殺) 마적사건(馬賊事件)이 잦았기 때문에 도범자의 제주도 유배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섬이라는 점에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대표적인 유배지로서 상징적인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왕족·정치인·관리·학자들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경중(京中)의 범죄자와 국경 변방 지방의 월경범인(越境犯人)에 이르기까지 각종, 각양의 죄를 범하였던 사람들이며 그 수도 많았다.¹⁾

한편, 조선시대에 많은 인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많은 학문과 지덕을 겸비한 정치가 학자들이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지방민들이 그들에게 사사(私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중종 때 김정(金淨), 광해군 때 정온(鄭蘊), 현종 때 신명규, 숙종 때 김진구와 김춘택, 영조 때 조관빈과 임징하, 정조 때 조정철(趙貞喆), 헌종 때 김정희, 고종 때 최익현과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 등을 들

1) 양순필(1992),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p.10.

수 있다. 이들은 지방민들을 적소(適所)²⁾에 모으거나 사숙(私塾)을 마련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전수했다. 따라서 후에 그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적소 부근에 유허비를 세우거나 사당을 세워 그들의 제사를 지냈고 이들 유배인들은 제주도에 유배된 뒤 저술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정온이 『덕변록(德辨錄)』, 「망백두시(望白斗詩)」, 「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애족(愛君愛族)의 정을 나타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집 중에는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³⁾ 또한 왕족이나 고관·현직 등 상류사회 인사들의 유배와 그 종자(從者)들의 제주 왕래는 의식주의 개선이나 언어와 예절 그리고 습속을 순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⁴⁾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제주도에 유배 온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역사의 발굴과 재구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제주지방사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며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유배문화를 제주유배문화로 규정하고, 그것이 갖는 주류적 내용과 제주사적(濟州史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유배인들의 제주지역생활상과 제주지역에 끼친 교육적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자료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유배문화이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공간적으로는 제주도에 그 대상을 한정시켰다. 이 논문의 자료는 문헌자료를 위주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김정희와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의 유배생활로 한정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유배인들의 유배생활이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을

2) 적소란 유배인이 유배생활을 하던 곳을 말한다.

3) 김정희의 『충암집(沖庵集)』, 정온의 『동계집(桐溪集)』, 이건의 『규창집(葵窓集)』, 신명규의 『묵재기문록(默齋記問錄)』, 김춘택의 『북헌집(北軒集)』, 임정하의 『서재집(西齋集)』, 조관빈의 『회헌집(晦憲集)』, 조정철의 『정현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김정희의 『완당집(阮堂集)』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4) 국립제주박물관 편(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153.

고찰해 지역정체성 확립에 유용한 향토사학습자료화 가능성과 함께 이를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유배인들 중에서 김정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유배인들(보통 1년 이내임)보다 비교적 장기적인 9년여의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제주지역 유배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김윤식과 박영효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들이 김정희로 시작되는 개화사상을 계승한 사람들로서 조선시대 유배제도가 끝나는 시기에 유배 온 인물들이며 이들이 제주 근대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주지역에 형성된 유배문화를 향토사학습과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7차)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하나가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학생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교육청과 학교,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⁵⁾ 이는 교육과정의 특징이나 구성의 방향에 있어 민족문화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향토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진다.”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⁶⁾ 향토문화의 교육적 적용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더욱이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용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도하는데,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과정(교과)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⁷⁾ 이를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알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장치는 학교현장에서 그 지방 혹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 교육인적자원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

6) 상계서, pp.3~4.

7) 상계서, p.18.

여러 교과에 걸쳐 향토문화자료의 개발과 그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운영에 있어서 보충학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⁸⁾ 따라서 학교별로 향토문화 자료를 교과에 투입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향토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체험 학습안은 먼저 교과별, 학년별, 과목별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향토문화(민속) 자료실 혹은 향토도서관, 멀티미디어실 같은 물적 공간을 두어 교과교육 이외에 전시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향토문화자료는 인터넷과 시청각 기자재 자료, 예를 들면 VTR 자료, 슬라이드 및 사진 자료 또는 O.H.P 등의 시각 자료와 녹음 등 청각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이 논문은 시대적 배경으로서 조선시대의 봉당정치와 유배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제도가 유배인의 의식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작품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유배인들이 제주사회에 끼친 문화적 영향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역사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전개하기로 한다.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양진건의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과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주유배인의 개화교육활동 연구(濟州流配人の 開化敎學活動 研究)」,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 김동전의 「조선시대의 제주사회: 유배문화와 방어유적」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제주지역에 형성된 유배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연구의 중심대상인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통해 제주 지역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 조선 말기에 유배되어 온, 김윤식, 박영효의 유배생활을 통해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까지 제주유배문화가 제주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크게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대상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쟁점으로서 유배문화의 개념과 유배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제주유배문화의 형성을 고찰하는데 우선 제주 유배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유배문화의 내용적 특징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8) 상계서, p.21.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영향과 학습자료화로서 유배인들의 유배생활이 지닌 교육적 영향과,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자료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5장은 결론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한계를 서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쟁점

1. 유배문화의 개념

규방가사(閨房歌辭)인 베틀노래에 “월궁(月宮)에 놀던 선녀(仙女) 옥황(玉皇)님께 죄를 지어 인간에 귀양 와서”⁹⁾란 대목이 있다. 이 귀양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원은 귀향(歸鄉)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귀향은 벼슬을 사(辭)하고 전원에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그 치사(致仕)의 이유가 혹은 신병인 경우도 있고 관운(官運)이 좋지 못하여 삭직(削職)된 경우도 있으며 정쟁 속에서 세부득(勢不得)하여 스스로 귀향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귀양은 애초에는 형벌이 아닌 향리방축(鄉里放逐)¹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점차 형벌의 뜻을 지니게 되어 원찬(遠竄)이니 유배니 유형이니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귀향이라는 개념을 좀 크게 설정하여 하나는 벼슬을 사(辭)하고 향리로 돌아가는 「귀향(歸鄉)」과 다른 하나는 죄명을 쓰고 원지(遠地)로 방축(放逐)되는 「유배(流配)」의 둘로 생각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이 귀양은 벼슬을 사(辭)하고 향리로 돌아가는 귀향대신에 죄인을 먼 지방으로 쫓아 보내던 형벌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죄인을 귀양 보냄을 유배라 한다.¹²⁾

원악(遠惡)의 제주도 유배인들은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중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럴 경우 현지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은 겨우 모면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이 가능했다. 따라서 그들은 주민들과 권위적으로 접촉하기보다 현지와 화합함으로써 독특한 유배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배문화이다. 대정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험한

9) 청주지방 규방가사, ‘베틀노래’ 인용, 양순필(1992), 전계서, p.13.

10) 향리방축(鄉里放逐)이란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에 은신함을 말한다.

11) 상계서, p.13.

12) 이는 곧 유배한 유형에서 나온 말인데 「수서(隋書)」의 “大業五年 大取天下 開皇已來流配”에서 비롯한다. 古來로 유형은 配·謫·竄·遷·從 등 여러 가지 사용하고 유배를 配流·謫落·遷謫·竄謫·門外黜送·圍籬安置·絕島安置 등 각각 의미가 있는 듯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유형으로 유배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유배라 총칭하기로 한다.(상계서, p.14)

지역이기 때문에 포구인 모슬포를 일컬어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포’¹³⁾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원악(遠惡)의 유배지로서 가장 각광을 받던 곳이다. 조정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배척해야 할 당사자들 가운데 중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추방 및 격리시키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도 대정(大正)이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정은 제주도 유배문화의 중심에 자리한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⁴⁾

탐라국 멸망 이래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골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골 정신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된 일종의 저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 지식인들의 반체제적 정신을 이어받은 이러한 반골정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 중의 하나로 수차례의 제주민란이 모두 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민란의 장두들 대부분이 유배인의 후손이거나 유배인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¹⁵⁾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원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전제로 한 학자관료(士大夫)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학자였다. 유배되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학자적 기능은 여전히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한 유배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겼다. 이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죄수라기보다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여러 성과를 남긴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기간에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양진건은 탐라국 멸망 이래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

13) 양진건(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4, p.334.

14) 상계서, p.334.

15) 상계서, p.334.

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반골정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반골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선비정신이라고 특징을 지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선비들은 불의에 죽음을 무릅쓰고 군주에게 그 부당함을 상소를 올리며 당당하게 저항한 선비정신이 투철하였으므로 반역의 의미를 내포하기 쉬운 반골정신보다는 선비정신이 더 적합하다. 물론 조선말기에 빈번했던 민란에서 반골정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그 이유는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민란들은 세도정권과 민씨 척족의 부패와 폭정 그리고 과도한 세금 수탈에 저항한 것이지 반란을 도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양순필의 제주유배문화 개념에 근거해서 유배문화의 개념을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제주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불의에 저항하는 선비정신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유배지로 이용되어 많은 인물들이 유배되어 온 곳이고, 이들이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에 의해 중앙의 수준 높은 문물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곳 주민들에게 한(恨)의 정서를 심어주어 이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한(恨)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2. 유배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1983년에 제주대학교의 양순필(梁淳秘) 교수가 『한국인명대사전』에서 추출한 조선시대 유배인 700명의 유배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지역별 배속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 이 논문에서 사용한 유배문화의 개념과 특징은 양순필(1992),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p.47과 양진건(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4, p.334에 근거하여 정의하였다.

〈표1〉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유배지 배속표

지역	경 기	평 북	평 남	함 북	함 남	황 해	강 원	충 남	충 북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계
인수	32	65	20	56	47	24	33	30	27	77	60	51	129	49	700
계	32	85		103		24	33	57		137		180		49	700

자료: 양순필(1983), 「제주유배한시연구」, 『제주대논문집』 16, p.52에서 재인용

〈표1〉에 의하면 제주도(추자도 포함)에 정배된 사람이 49명¹⁷⁾이다. 유배인 수 이외에 유배인들이 유배지에 체류한 기간도 유배지의 지역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배인들은 어느 한곳에서만 유배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이배되기도 하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배인들의 유배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¹⁸⁾ 유배문화의 형성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이러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배지 문화론’을 가장 먼저 제시한 김정호는, “전남이 농경지대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으면서도 왕도(王都)인 서울과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특징 때문에 유배지와 은둔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시대 340년 동안 귀양살이한 사람 700명 중 1/4이 넘는 178명이 전남지역으로 귀양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라도를 유배지로 특화시켰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라도의 유배지적 사회환경은 주민의식을 반집권적·현실 비판적으로 이끌었으며 유배되어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시·서·화(詩·書·畫)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김정호의 논지는 일견 타당해 보이며 실제로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왔다.²⁰⁾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만만치 않는데, 우선 박석무는 인물 중심의 호남학에 대한 전통을 다루면서 호남의 ‘유배문화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산초당에서 이루어진 많은 저서가 필사되어 다산의 지식과 사상이 지역지식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로써 당시 반항적 입장에 서있던 호남의 지식인들은 큰 자극을

17) 최근 발표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된 인물은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18) 이해준(1987), 「진도유배인물지」,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p.374.

19) 김정호(1983), 「유배와 은둔이 남긴 유산」, 『전남의 전통문화』 상, p.13.

20) 박미선(2002), 「‘호남문화론’에 대한 제 논의와 전망」, 『호남문화연구』 31, p.222.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다산학’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다산과 지역엘리트들의 학문적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²¹⁾ 이러한 주장은 “전라도 지식인들이 유배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교화되었다”는 기존의 소극적 사고방식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²²⁾

다음으로 김동수는 ‘호남소외론’과 ‘유배문화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호남지역이나 호남사람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편견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고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에 제시된 ‘백제 멸망시기론’, ‘고려 혼요십조 제정시기론’, ‘조선시대론’과는 달리 일제시대와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즉, 호남지역민에 대한 편견은 일제시대의 차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낙후, 이로 인한 호남인들의 타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더욱 조장·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호남 소외의 문제가 지극히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치유·해소하려는 방안 또한 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또한 김동수는 기존의 “전라도 지역은 유배문화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속설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므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시대 전체 유배인 700명의 첫 번째 유배지만을 기준으로 ‘전라도 유배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유배인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전파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배인들에 의해 반집권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지역정서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관념론적인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²⁴⁾

다음으로 양진건은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²⁵⁾ 많

21) 상계서, p.222; 박석무(1996), 「해남·강진의 유배지문화」, 『역사와 지성』 참조

22) 박미선(2002), 전계서, p.222.

23) 상계서, p.223; 김동수(1996), 「호남소외론의 허와 실」, 『호남의 역사와 문화강좌 자료집』, 전남대학교박물관 참조

24) 박미선(2002), 전계서, p.223; 김동수(1995), 「유배문화론의 부당성」, 『사회문화리뷰』 1995년 10월호 참조.

25) 양진건(2001), 전계서, p.334.

은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한 유배인들도 많았다. 따라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죄수라기보다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여러 성과를 남긴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기간에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 유배인들은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중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럴 경우 현지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은 겨우 모면할 경우도 없지 않아서 그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이 가능했다. 따라서 그들은 주민들과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 현지와 화합함으로써 독특한 유배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²⁶⁾

이 연구는 유배인들에 의해서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추사체’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추사와 지역엘리트들의 학문적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제주출신의 대학자로서 고득중과 양성지같은 뛰어난 인물을 배출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도 수준 높은 유교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제주지역에도 나름대로 인재들이 배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조 7년(1629년)부터 순조 30년(1830년)까지 출륙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제주인들은 유배인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게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배인들과의 교류는 지역문화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각 지역은 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어 발전하고 계승되며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한다. 이들 문화는 때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천적인 기본을 보존한 채 꾸준히 변화하면서 계승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표출한 문학을 논함에 있어 문화권의 특징과 그 계승·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유배인이 제주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이 논문은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사를 역사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비중을 두고 보게 되는 문제는 조선시대의 경우 봉당정치가 빚어낸 유배문화라고 볼 수 있다.²⁷⁾ 이는 조선사회가 양반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심화했었다는 것과 봉당정치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26) 상계서, p.333.

27) 양순필(1992), 전계서, p.13.

는 엄연한 역사성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환해성과 격절성·협소성을 지닌 섬이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유배지였다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섬이 갖는 사회적 정체성과 전통적 생활문화의 후진성에 폭넓은 지역의 개성과 향토성을 갖게 된다. 즉,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중앙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변방으로 취급되어졌다. 제주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 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나갔다. 제주인들의 대외관계는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접촉에 그치게 되었다. 더욱이 17세기 인조 7년(1629)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²⁸⁾이 순조 30년(1893)까지 2백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제주인들은 유배인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따라서 변방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의 공간이었고, 제주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²⁹⁾ 이러한 변방의 시기 5백 년 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체성³⁰⁾을 형성하게 된다. 외부에 대한 순응은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노동방식, ‘조냥’으로 상징되는 내핍적 생활양식으로 집약되면서 끈질기고 억척스럽고 강인한 기질이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여겨지게 된다. 반면, 조선왕조 말기에 제주인들은 민란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제주인의 저항 기질을 강화시켰고,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비쳐졌던 것으로 보인다.³¹⁾

제주인들은 고대 탐라국의 독립경험에서부터 비롯된 자율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인의 자립적, 자강적 정체성으로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고려와 조선과 같은 중앙정치체제의 강력한 구심력에 이끌리면서 중앙에 대한 순응과 더불어 반발하는 사례도 빈발하였다. 중앙의 대리자인 지방관의 수탈 속에서도 순응의 정체성은 조냥과 수눌음으로 표출되었고, 반발의 정체성은 민란으로 표출되는 저항정신, 저항을 초월한 별국의식³²⁾으로

28)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는 많은 수의 제주인들이 육지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군사 수의 감소와 부역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29) 한석지 외(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5, p.122.

30)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은 주민의 공동체적 역사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창출된 상상된 공동체적 경험보다 훨씬 강력하고 끈질긴 것이 직접적인 공동체적 경험이며 특히 외집단과의 투쟁으로 경험될 때 더욱 그렇다.(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p.162)

31) 한석지 외(1998), 전계서, p.122.

32) 이러한 내면적인 별국 저항 의식은 민간신앙에서도 찾아진다. 즉, 탐라국 이래의 제주도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대표적 신단인 광양당과 차귀당, 그리고 풍운뇌우제 등이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

승화되었다. 이러한 제주인의 정체성은 4·3을 거치면서 무조건적인 순응과 반발로 양극화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기본 인식 하에서, 이 연구는 제주에 형성된 유배문화의 특성과 교육적 영향, 그리고 유배문화의 학습자료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도민들에 의해 모셔졌다. 조선 숙종 때 이형상 목사가 이들 민간 제사를 유교식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광양당은 한라산제로 오히려 수용되었고, 풍운벼우제는 잠시 폐지되었다가 도민들의 반발로 이형상 목사가 퇴임하자마자 다시 모셔졌다.(상계서, p.123)

Ⅲ. 제주유배문화의 형성

1. 김정희의 유배생활

기존의 추사에 대한 연구들은 서예(書藝)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대개 그 개인의 예술관과 예술활동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이밖에 문학적 연구가 부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어떤 형식으로는 그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9년에 걸친 제주유배 동안 전개된 그의 교학활동(敎學活動)³³⁾에 관한 논의는 양진건의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교학사상 연구(秋史 金臺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에서 이루어진다.

추사의 학문적 활동은 헌종(憲宗) 20년(1840) 윤상도옥사(尹尙度 獄事)가 재론되기 전까지 평탄한 출사기(出仕期)를 보내다가 55세에 이 사건이 벌미되어 절도안치(絶島安置)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9년 동안 제주도(濟州島) 대정현(大靜縣)에서 유배형을 치루게 된다.³⁴⁾ 추사의 제주유배는 나이 어린 헌종이 즉위하여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어 안동김씨가 득세하게 되면서 헌종의 외가인 풍양 조씨에게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안동김씨가 풍양 조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풍양 조씨와 가까운 추사일문(秋史一門)을 탄핵함으로써 빚어진 정쟁의 일환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형률제도(刑律制度)의 하나인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重罪)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³⁵⁾ 그 본질은 자유형과 비슷하나 사형의 환형(換刑)으로 대치되는 사형완화법(死

33) 교학(敎學)이라는 용어는 교육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이다. 원래 학(學) 또는 학문(學問)이라하는 것은 지식의 체계 또는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리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한다. 학이란 글자의 원래 의미는 효(效)이다. 효는 배움 즉, 모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선인의 경험 및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가르침(敎)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적으로 말해도 한 편이 가르치고 한 편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교’와 ‘학’은 경험 및 지식의 전수를 각각 반대 측에서 파악한 것이 된다. ‘교(敎)’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중요한 것은 ‘도(道)’이다. 학이란 교(敎) 혹은 도를 배우는 것이다. 자사(子思)가 말한 「天命之謂性 率性謂之道 修道之謂敎」라는 말과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爲師者 知所以敎而弟子 知所以學」이라는 의미에서 「교학」도 되려니와 보다 현대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한 자기실현, 인격실현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교학활동이란 교육과 학문을 통해 자기실현 혹은 인격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교육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양진건(1992),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 『제주도연구』 9. p.183)

34) 『憲宗실록』, 卷七, 六年, 庚子 九月 辛卯條, 「鞫囚罪人正喜大靜縣」

刑緩和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대체로 유배인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원근이 책정되었고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종신형이었다. 유배인은 일단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으로서 감일등(減一等)된 죄인이었으며 그들의 성분은 대개가 정치범이었다. 정치범으로 단죄되어 유배된 죄인은 사면령이 내리든지 정치정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귀향할 수 없었다. 유형 중에 가장 가혹한 조치가 이른바 절도안치(絶島安置)로서 특히 제주도과 같은 섬은 죄명(罪名)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되었다.³⁶⁾ 봉당정치의 변질로 인해 조선후기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 일당전제화 추구는 상대 당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적자생존(適者生存)으로, 이런 봉당정치의 폐해로 빈번히 이루어진 유배형은 선비의 현실적 집착을 거세하고 도태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였다.

유배의 이러한 거세와 도태의 기능은 유배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한계상황(限界狀況)을 절감케 했다. 따라서 철저히 난파(Scheitern)하여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관여된 요인들의 변화와 재생산을 통하여 유배를 비판적 환경으로 인지하는 인내성을 보여주기 도 했다.³⁷⁾ 특히 후자의 경우는 유배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적절히 조화하여 이른바 ‘발전의 저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추사의 제주유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³⁸⁾

그런데 중형(重刑)의 유배인인 경우 적소(適所)의 목사(牧使)나 향리(鄕吏)의 배려로 유폐(幽閉)되는 일을 모면할 수도 있어 유배지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했다.³⁹⁾ 추사는 이런 기회를 얻어 제주도 주민들과 흥학교화(興學教化)의 교류를 통해 죄수라기 보다는 타향(他鄕)의 견문을 넓히면서 잠심도학(潛心道學)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휴식년으로써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추사는 제주도 현지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자극하고 교양시킴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향당문화권(鄕堂文化圈) 형성을 주도할 수 있었다.

추사의 제주교학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일 그의 학통을 승계하고 『완당집(沅堂

35) 『大明律直解』, 名例律五刑名義, 「流配謂人犯重罪刑殺流法遠方終法遠方終身不得回歸」

36) 『大典會通』, 刑典 推斷

37) 양진건(1992), 전개서, p.189.

38) 상계서, p.190.

39) 이것은 어떤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순전히 목사나 향리의 사적 관계(私的關係)에서 이루어진 배려의 차원이다. 특히 유배인의 정치적 경중(政治的 輕重)과 정치적 상황(政治的 狀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사의 경우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나 장인식(張寅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양진건(1992), 전개서, p.190)

集』 오권오책(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유배기간 동안에 두 차례나 내도했었던 내종질(內從姪) 민규호(閔奎鎬)가 쓴 「소전(小傳)」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달 동안에 인문(人文)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의 노력은 우선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긴장과 그리고 제주도의 나쁜 풍조에 대한 직시에서 비롯되었다. 학문적 긴장이란 유배라는 상황 때문에 탈진할 수 있는 자신을 추스려 마음의 고통스러움과는 상관없이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내는⁴¹⁾정신을 견지함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나쁜 풍조라 함은 하나는 무지(無知)의 풍조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科擧)위주의 편협된 공부 풍조를 말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실학자들이 당대 교육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바로 그 사안이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적에 자못 구경(九經)의 빛을 보여 주고 문선(文選)의 리(理)를 설명해주었는데 모두가 당황만 하고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치 모기부리가 철벽을 만난 것과 같으며 혹 와서 묻는 것이 있다면 이는 「사요취선(史要聚選)」 따위였고 아니면 무슨 글제의 서두와 목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것뿐이었소.⁴²⁾

이러한 풍조를 직시하며 추사는 제주인들과 흥학교화(興學教化)의 동화(同化)를 통하여 교육사상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다. 왕성한 추사인맥(秋史人脈) 형성이 바로 그 증거이다. 강사공(姜師孔), 박계첨(朴啓瞻), 허숙(許瑒), 김우민(金于民), 이시형(李時亨), 김여추(金麗錐), 이한우(李漢雨),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강기석(姜琦奭), 김좌겸(金左謙), 홍종우(洪錫祐) 등이 제주도에서 그와 사제강습(師友講習)의 예(禮)

40)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者如市數月人文大開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양진건(1992), 전계서, p.191에서 재인용

41)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2, 與懋兒, 「此心良苦吾如舊吟藝»; 양진건(1992), 전계서, p.192에서 재인용

42)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4, 與張兵使, 「走之初來耶頗示之以九經之色說之以文選之理皆恍不人如蚊嘴鐵壁或有來問者是史要聚選不爾則某題之頭項當作如何»; 양진건(1992), 전계서, p.192에서 재인용

를 통해 관계맺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써 위항계층(委巷階層)⁴³⁾이라고 지칭되었던 중인들이다.

이들 가운데 강도순은 추사가 이적하여 머물렀던 집주인으로 추사의 영향으로 후일 제주필원(濟州筆苑)으로 추앙된다. 특히 강도순의 가계를 통한 추사의 영향은 독특한 구조를 통해 후대에 매우 크게 승계되었다. 원악(遠惡)의 유배인들이 갖는 성향은 대체로 체제비판적(體制批判的)이다.⁴⁴⁾그러한 성향은 유배지 현지주민들에게도 유포되기 마련이며 비록 그 성향 표출이 노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만남의 저변 분위기는 유배적 갈등과 무관하기 어렵다.⁴⁵⁾

이렇게 유포된 유배인들의 성향은 관계한 주민들의 가계 또는 제반 환경을 통해 후대에 계승된다. 이를테면 제주도 대정 지역에서 엿볼 수 있는 반골적 성향(叛骨的 性向)이 바로 그러한 예⁴⁶⁾이다. 즉, 이것은 조선조 최악의 유배지였던 대정이 유배제도내에서 할 수 있었던 역사적 선택이었다. 추사와 관계하였던 강도순(姜道淳)의 후손 가운데 강우백(姜遇伯)은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난(李在守亂) 또는 성교난(聖敎亂)로 불리우는 농민항쟁의 장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또한 강문석(姜文錫)은 일제시대에 한라의숙(漢拏義塾)을 열고 인재육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교육사업에 힘썼으며 나아가 1948년의 제

43) 전근대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중간계층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신분개념으로 중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 즉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이다. 이 때의 중인은 좁은 의미의 중인과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중앙의 여러 기술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역관(譯官)·의관(醫官)·율관(律官)·산관(算官)·화원(畫員) 등 기술관원을 총칭하였다. 이들은 잡과(雜科) 시험에 합격하여 선발된 기술관원이거나 잡학 취재(取才)를 거쳐서 뽑힌 기술관원으로서 모두가 동반(東班) 소속의 관원이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중앙의 기술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기술관, 그리고 서얼(庶孽), 중앙의 서리(胥吏)와 지방의 향리(鄉吏), 토관(土官)·군교·교생 등 여러 계층을 포괄적으로 일컫었다. 이 넓은 의미의 중인이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을 이루고 있는 신분층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 계층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신분과 직업은 세습되었다. 이들은 육조(六曹)와 삼사(三司) 등의 일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에 의해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또 이들은 지방 양반의 명단인 향안(鄉案)에 등록되지 못하였고, 향교(鄕校)에서도 양반의 아래에 앉아야 하는 등 양반에 의해 천시를 받았다. 양반들은 중인을 행정 사역인(使役人)으로 부리기 위하여 이들을 신분적으로 엮어매고 관념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별하였던 것이다. (<http://100.naver.com/100.php?mode=body&id=141837> 참조)

44) 이에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비판적이란 군왕이라는 체제의 상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정을 보위하는 정치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양진건(1992), 전계서, p.193)

45) 상계서, pp.192-193.

46) 제주도의 반골적 성향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한 저항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때로 분리주의적 유산이나 혹은 야당성이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제주도 민란의 대부분은 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양진건(1990), 「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민족문화연구』, p.274)

주도 4·3사건 당시 좌익계의 거물로서 활약했던 이승진(李承珍)은 강문석의 사위였다. 이승진 역시 중종때 제주에 유배된 이세번(李世蕃)의 후손이며 또한 이세번의 선대인 이재수(李在守)는 1901년 이재수난의 장본인으로 체제비판의 승계구조는 복잡 미묘하다.

다른 한편, 이한우(李漢雨)는 추사가 제주에서 만난 가장 격조 높은 종유자(從遊者)였다. 이한우는 시에 능하기도 했었지만 강기석(姜琦奭), 오승현(吳承鉉) 등 유림들과도 종유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던 당대 제주의 사표(師表)였다. 안달삼(安達三), 김희정(金羲正), 이계징(李啓徵) 그리고 고영흔(高永昕) 등이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당시 도학(道學)으로는 안달삼을 시학(詩學)으로는 김희정을 남주 제일인자(南洲 第一人者)로 꼽았던 것을 보면 이한우의 비중이 실감된다.⁴⁷⁾ 안달삼과 이계징은 후일 장성의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문하생⁴⁸⁾으로 활약하게 되고 김희정은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문인이 된다.⁴⁹⁾ 이들의 학문적 기초가 이한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때 이한우는 당대 제주 교학질서의 중추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한우의 「제주사선생수성초당(題秋史先生壽星草堂)」⁵⁰⁾이라는 한시(漢詩)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추사인격(秋史人格)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추사를 숭앙하게 되었으며, 추사 또한 그의 유배거실인 수성초당을 개방하였던 것이다.

또한 추사는 금석(金石)의 가치를 서체(書體)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서도(書道)를 강조하였다. 그의 서법은 임진왜란 이후 현저하게 쇠퇴한 것을 청대 학술의 영향에 근거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체득, 대성한 입론(立論)이기 때문에 서도에 큰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적소(謫所)에서 그의 독특한 서법인 추사체(秋史體)를 완성시켰을 정도이고 보면 추사의 서도에 대한 열의가 가늠된다.

정조(正祖)때 제주 여류자선가 김만덕(金萬德)의 유덕을 찬양하여 그의 양손(養孫)인 김중주(金鍾周)에게 가문을 송찬하는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친필의 액(額)⁵¹⁾을 주는 등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열의를 보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사의 영향으로 서도에 능하여 제주필원으로 수록된 이가 김구오, 강도순, 박계

47) 吳文福(1989), 『瀛州風雅』, p.227.

48)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참조; 양진건(1992), 전계서, p.194에서 재인용

49) 『勉菴集』, 年譜, 乙解四月條, 참조; 양진건(1992), 전계서, p.194에서 재인용

50) 吳文福(1989), 전계서, 「千里南溟一草堂 聖恩許見壽星光 孤衷夜夜焚香坐 感泣頭邊白髮生」

51) 이때 「金鍾周大母大施島餓被殊異之恩至入金剛山 緝紳皆紀傳詠之古今稀有也 書贈此扁以表其家」라는 내용을 함께 주었다.(양진건(1992), 전계서, p.194)

침 등이다. 특히 박계침은 추사체를 정득하였다고 하는데 추사가 방면되어 육지로 가서 그를 불렀을 때 주변의 질시로 독살된다. 이러한 질시는 비단 박계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추사와 막역하였던 제주인 오진사(吳進士)(성명 미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사람들이 의당 그대를 애석히 여겨야 할 터인데 비단 애석히 여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말살하려고까지 하니 이리기에 완적(阮籍)의 도궁(途窮)이 있게 되는 까닭이라 바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소.⁵²⁾

유배인이 고위정객(高位政客)일수록 일부 제주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해배(解配) 후의 정치세(政治勢)의 복귀에서 비롯되는 이해(利害)가 그런 관계를 가능케 하였던 기본 동인(動因)이었다. 질시 또한 그런 관계의 연장에 놓여있는 문제였다.⁵³⁾

한편, 서법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전각(篆刻)이다. 원래 전각은 중국의 진·한대(秦·漢代)에서부터 활발하게 궤도에 올라서 송대(宋代)에 이르러 전각의 감상이 비롯되었다. 전각의 서체는 한대(漢代)에 극도로 발달했다가 당·송(唐·宋)에 이르러서는 그 격(格)이 매우 떨어졌다. 그후 원대(元代)에 이르러 복고를 내세웠고 청대(清代)의 고증학과 더불어 금석학의 발달을 보게 됨에 따라 전각이 면모를 크게 일신하였으며 특히 등석여(鄧石如)는 한인(漢印)의 각(刻)을 본받아 새로운 전각풍(篆刻風)이 일어나게 되었다.

추사는 이에 영향을 받아 고인보(古印譜)를 구득(求得)하여 직접 진·한(秦·漢)의 실영(實影)을 본받게 되어 그의 전각은 청대(清代)의 그것을 뛰어 넘은 진경(眞境)을 스스로 담게 되었으며 점차 그의 독특한 전각풍을 이룩하게 되었다.⁵⁴⁾ 추사는 제주인들에게 각(刻)하는 방법도 가르쳤으며⁵⁵⁾ 이러한 노력은 김구오(金九五)에게 승계되었고 이어 김구오의 아들 우제(愚齋)가 정통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김의남(金義男)이 가법(家法)을 따랐다. 김의남의 전각은 홍종시(洪鍾時)로 이어졌으며 이것을 박판사(朴判事)(성명 미상)가 승계하였다. 홍종시는 서법(書法)과 전각(篆刻) 등에 있어 「추사연원서법입신(秋史淵

52) 『阮堂先生全集』, 卷4, 與吳進士, 「此中之人固當愛惜左右非徒不知愛惜從以抹殺之此所以阮途之窮而直令人寒心」; 양진건(1992), 전계서, p.195에서 재인용

53) 양진건(1992), 전계서, p.195.

54) 김응현(1981),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pp.207-220.

55) 『阮堂先生全集』, 卷2, 「使此中學徒輩摹刻」; 양진건(1992), 전계서, p.195에서 재인용

源書法入神)」이라는 세평(世評)이 시사하듯 추사를 비교적 제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완당선생서법총론(阮堂先生書法總論)』이라는 저서도 남겼다.⁵⁶⁾

이와 같이 추사와 제주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제주도 문풍진작이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추사의 유배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내도(來島)를 통해 계속되었던 추사학파(秋史學派)의 교학적 열의 그 자체에도 그러한 진작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독서활동을 보여준 사람은 단연 추사 김정희이다.⁵⁷⁾ 실사구시 학파의 개산조(開山祖)로서 그는 박제가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되고 연경 예방으로 청조학적(淸朝學的) 전통을 승계함으로써 실사구시의 방법론을 인식하게 되어 약관의 나이에 몸소 학파의 원류로서 두각을 보이게 된다. 그는 안동김씨의 정치극으로 자행된 현종 6년(1840)의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유배되면서 종신무기수로서 9년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다.

추사가 유배지 제주도에서 왕성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자 이상적의 덕분이었다. 이러한 이상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 바로 『세한도』였다. 추사는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歲寒圖)』 발문에 “지난해에 계복(桂馥)의 『만학집(晩學集)』(1841)과 윤경(惲敬)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庫)』(1811)의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더니, 올해 또 가장령(賀長齡)의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을 보내주었네.”⁵⁸⁾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추사는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천만 리 먼 곳에서 사오고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일세.”⁵⁹⁾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적⁶⁰⁾은 1841년 10월부터 1842년 3월까지 제5차 연행(燕行)을 다녀오고 1842년 10월부터 1843년 3월까지 제6차 연행을 다녀오면서⁶¹⁾ 추사가 부탁했던 책들을 구입하거나

56) 『研濃先生遺墨』 참조; 양진건(1992), 전계서, p.196에서 재인용

57) 양진건(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p.90.

58) 『歲寒圖』, 跋文, “去年以大雲晩學二書寄來今年又以滿畊文編寄來”; 양진건(2003), 전계서, p.90에서 재인용

59) 『歲寒圖』, 跋文, “此皆非世之常有購之千萬里之遠積有年而得之此一時之事也”; 양진건(2003), 전계서, p.90에서 재인용

60) 이상적은 무려 12번이나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19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역관으로 활약했는데 1830년 봄에 28세의 청년으로 처음 중국에 다녀온 뒤 바로 용호(龍湖)의 추사를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로 일찍부터 추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추사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양진건(2003), 전계서, p.90)

직접 구할 수 없는 책들은 구입을 부탁하고 돌아온 뒤 서울에서 책을 받아 1843~4년에 걸쳐 추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사는 평소 이상적의 빈번한 연행(燕行)과 주선을 통해서 국내에 앉아서도 중국 학예계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학예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상적은 추사의 명성과 후광을 배경으로 추사가 맺고 있었던 북경 인맥을 활용하여 단순한 역관으로서의 신분을 넘어서 극진한 문사 대우를 받으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추사는 훗날 이상적이 보내준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를 회고하며 소동파가 해남도에 귀양갔을 때 지니고 있었던 도연명과 유종원의 문집을 남천이우(南遷二友)라고 불렀던 것에 비긴다고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며⁶²⁾ 『황조경세문편』은 재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누구와 더불어 같이 맛볼 길이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는 편지를 동생에게 보낼 정도로⁶³⁾ 추사의 제주 유배에서 이 책들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만학집』은 추사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옹방강(翁方綱)(1733~1818)이 표제를 써주고 완원(阮元)(1764~1849)이 서문을 써주었는데⁶⁴⁾ 옹방강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해고도의 유배지 제주도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추사에게는 더욱 각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후지쓰카(藤塚鄰)는 이들 책과 그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논하고 있다.

“우선(藕船)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완당(阮堂)을 생각하여 자주 물건을 보내서 위문하는데 성의를 다하였다. 4년째인 헌종 9년(1843)에 그는 계미곡(桂未谷)의 『만학집(晩學集)』과 운자거(惲子居)의 『대운산방집(大雲上房集)』을 북경에서 새로 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완당에게 이것을 보내 그의 심심함을 위로하였다. 완당은 옹방강, 완원과 학문적 교류를 할 때 일찍부터 미곡(未谷)의 학문서예(學問書藝)에 마음이 끌리고 또 섭동경(葉東卿)이라든가 이월강(李月汀)의 서찰을 통해서 미곡에게 『설문의증(說文義證)』 오십권(五十卷)의 위대한 저서가 있음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얹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그의 저서인 『만학집』의 기증에 접하였던 것이다.

본서(本書)는 8권으로 되어 있고 도광(道光) 21년(1841)의 간각(刊刻)으로 표제지(標題紙)

61) 鄭後洙(1990), 『朝鮮後期中人文學研究』, 깊은샘, p.62.

62) 『阮堂全集』, 卷8, 雜識, “樺桂二集果是南遷二友之不足多矣”; 양진건(2003), 전계서, p.91에서 재인용.

63) 『阮堂全集』, 卷2, 與舍李相喜, 四, “文編中果有可喜處非一二無緣共嘗獨自看過亦有何意趣耶”; 양진건(2003), 전계서, p.91에서 재인용.

64) 藤塚鄰(1975), 『清朝文化東傳の研究』, 일본: 國書刊行會, p.470; 양진건(2003), 전계서, p.91에서 재인용.

에는 가경병진(嘉慶丙辰)의 옹방강의 제명(題名)이 있다. 권수(卷首)에 장상지(藏祥遲)의 『계군미곡전(桂君未谷傳)』 다음에 ‘조각성씨(助刻姓氏)’ 도광(道光) 21년(1841) 계현우(桂顯誥)의 식어(識語) 다음에 건륭(乾隆) 59년(1794)에 쓴 완원(阮元)의 서(序)가 있고 권말(卷末)에는 도광(道光) 21년에 쓴 공헌이(孔憲彝)의 후서(後序)가 있다. 이는 미곡(未谷)의 경술(經述)을 알기에 충분한 훌륭한 저서이다. 운자거(惲子居)에 대해서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운산방문고초집(大雲山房文藁初集)』 사권(四卷)은 가경(嘉慶) 16년(1811)에 각각(家刻)하였는데 이집(二集) 사권(四卷) 일록범잡문(日錄凡雜文) 구십육편(九十六篇)은 가경(嘉慶) 20년(1815) 장주(長洲)의 송양광길포(宋揚光吉甫)가 광주서호가(廣州西湖街)에서 각(刻)하고 있는데 완당이 기증받은 것은 초집(初集) 사권(四卷)뿐인 것 같다. 완당은 이 두 도서(圖書)를 얻고 각별히 기뻐하였다.

우선(藕船)은 또 이듬해인 도광(道光) 24년(1844) 가우경(賀耦庚)의 편(編)이라고 칭하는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 일백이십권(一百二十卷) 칠십구책(七十九冊)을 구하여 멀리에서 기증하였다. 본서(本書)는 도광(道光) 7년(1827)의 간본(刊本)으로 자서(自敘)가 있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서법(書法)의 오개조(五箇條)의 의례(義例)인 오례(五例)를 들고 있다. 위묵심(魏默深)이 편찬(編纂)하고 조가산(曹稼山)이 교감(校勘)한 것이다.⁶⁵⁾

추사가 『세한도』를 이상적에게 그려준 시기가 1844년임을 고려해 볼 때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藁)』는 1843년에 기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44년 3월에 그의 친구인 권이제(權彝齋)에게 보낸 편지에 “『대운산방문고』는 귀하의 책장에 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도 한번보고 싶다. …(중략)… 초집(初集), 이집(二集) 외에 또 외집(外集)이 있다. 귀하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만일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잠시 빌려주기 바란다.”⁶⁶⁾ 했던 것으로 볼 때 추사가 이상적으로부터 기증 받은 것은 후지쓰카(藤塚鄰)의 지적대로 초집(初集) 사권(四卷)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대운산방문고』의 이집(二集), 외집(外集)까지도 빌려 받고 보다 많이 숙독(熟讀), 완미(阮味)하여 참된 뜻을 구하려고 하는 추사의 왕성한 독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처지에 대해 추사는 “제주에 와서는 요즈음 자못 마음이 잠잠해지니 연구를 할 수 있어 시력을 심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봉(機鋒)을 발전(撥轉)할 상대가 없어서

65) 상계서, p.453; 양진건(2003), 전계서, p.92에서 재인용

66) 상계서, p.455; 양진건(2003), 전계서, p.92에서 재인용

때로는 책을 덮고 쓸쓸히 웃을 뿐이다. 아무런 교정(敎正)을 받을 길도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 67)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밖에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대하였던 서책들의 목록(68)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책은 『해국도지(海國圖志)』이다. 『해국도지』는 청나라의 위원(魏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로서 청조 말의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후일 『만국정표(萬國政表)』 등이 간행되어 풍부한 해외지식이 제공되기 전에는 해외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입문서였다. 이 책은 단순한 세계지사서(世界地史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청국 공양학과(公羊學派)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서로서 조선 말기에 들어 박규수(朴珪壽)와 유대치(柳大致) 등을 통하여 김옥균(金玉均) 등의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추사의 유배활동은 제주교육의 질적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추사는 모범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제주교육에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제자가 3천명이라는 “완옹문하삼천사불부재명 독출군(阮翁門下三千士不負才名獨出群)” 69)의 시어(詩語)가 시사하듯 그만큼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우강습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강사공(姜師孔), 박계첨(朴啓瞻), 허숙(許瑫), 이시형(李時亨), 김여추(金麗錐), 이한우(李漢雨),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강기석(姜琦奭), 김좌겸(金左謙), 홍석우(洪錫祐), 김병욱(金炳旭) 등이 그들로서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으로서 소위 위향계층(委巷階層)이었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질적 변화의 구체적 예증은 추사와의 사우강습을 통해 발흥한

67) 상계서, p.456; 양진건(2003), 전계서, p.92에서 재인용

68) 『본초(本草)』: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이 편찬한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 『시순(詩醇)』: 청나라 고종(高宗)이 편찬한 『어선당송시순(御船唐宋詩醇)』 47권, 『율수(律韻)』: 원나라 방회(方回)가 편찬한 『영규율수(瀛奎律韻)』 49권, 『서화보(書畫譜)』: 청나라 손악령(孫岳頌) 등이 봉지찬(奉旨贊)한 『어정패문제서화보(御定佩文齋書畫譜)』 100권, 『주역절중(周易折中)』: 청나라 성조(聖祖)가 어찬(御贊)한 『어찬주역절중(御纂周易折中)』 22권, 『장진첩(藏進帖)』: 명나라 만력(萬曆) 진원서(陳元瑞) 각(刻)의 『발해장진첩(渤海藏眞帖)』 8권, 『천자문(千字文)』: 양나라 주흥사(周興嗣)가 편찬한 『천자문(千字文)』, 『영비경(靈飛經)』: 도경(道經)의 일종, 『예해주진(藝海珠塵)』: 불분권(不分卷) 48책, 『해지(海志)』: 청나라 위원(魏源)이 쓴 서양문물(西洋文物) 소개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 『기정시첩(岐亨詩帖)』: 소동파(蘇東坡)가 황주(黃州)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시첩(詩), 『청해당첩(淸愛堂帖)』: 청나라 유옹(劉壙)이 법첩(法帖)으로 만든 『청해당석첩(淸愛堂石帖)』 4권, 『고기관식(古器款識)』: 철첩(鐵帖)이 만든 금문도록(金文圖錄) 『십육장락당고기관식(十六長樂堂古器款識)』, 『한예자원(漢隸字原)』: 남송(南宋) 루기(婁機)가 편찬한 서학(書學)에 관한 책. 이目錄은 『阮堂全集』에 실린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양진건이 작성한 것이다.(양진건(2003), 전계서, p.93)

69) 『姜瑋全集』, 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別”; 양진건(2003), 전계서, p.97에서 재인용

위향문화운동(委巷文化運動)⁷⁰)으로 나타나는데 이 운동은 주로 추사와 만남을 가졌던 제주도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통해 김구오, 강도순, 박계침 등은 제주필원으로 추앙(推仰)된다. 이 운동의 하나인 전각운동(篆刻運動)⁷¹)은 제주도 지식인들 가운데 김구오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어 김구오의 아들인 우제(愚齋)가 정통(正統)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김의남(金義男)이 가법(家法)을 따랐다. 이어 김의남을 홍종시(洪鐘時)가 이었고 이어 박판사(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 후기 특유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곧 제주도 독자적인 교육운동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은 유배인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예적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청의 예원(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학예에 영향을 미쳐 김정희가 삼절(三絶)의 고봉(高峰)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중인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사의 독서활동은 단연 독보적인 모범이었다. 조선 후기의 이같은 제주도의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제주도의 시회(詩會) 「굴원(橋園)」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교육내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의 학문관에서 기인한다.

“사람의 제주란 각각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 처음에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눈 밝은 사람이 열어 이끌어 줌이 없을 뿐입니다...그러다 보면 지혜와 식견이 월등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에 큰 병은 게으름에 편안히 있는 것입니다. 태산 꼭대기를 가

70) 위향이란 원래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 계층인 중인 신분계층이 사는 곳을 말한다. 실학의 대두로 말미암아 생활에 여유가 생긴 의학, 역학, 산학, 율학, 약학 등 이른바 잡학에 종사했던 전문 지식인인 이들은 처음엔 관계 진출에 뜻을 두고 공부를 했지만 곧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되자, 문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며 이를 두고 위향문학이라고 한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만난 제주도 지식인들은 대부분 중인 신분이었으며 이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문학적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시사(詩社)를 결성하거나 전각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를 두고 양진건은 위향문화운동이라고 하였다. (양진건(2003), 전계서, p.98)

71) 전각은 동양 특히 중국권 문화의 독특한 순수예술이다. 전각은 한자의 전서체를 새겨 조각하는 것, 즉 인장을 조각하는 것이다. 전서체를 쓰는 이유는 자형(字形), 획 등이 갖는 조형성이 돌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서체만을 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서체를 쓰더라도 모두 전각이라고 한다. 전각은 반드시 돌에만 새기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당대 독특한 전각풍을 이루고 있던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使此中學徒輩摹刻) 제주가 좋은 제주도 사람이 죽자 매우 애통해 하기도 했는데(而此中善刻者間已化去是切悶然) 이렇게 당대 제주도에서는 추사를 통한 전각의 보급이 활발했는데 이를 두고 양진건은 전각운동이라고 하였다.(상계서, p.98)

려면 다시 한 걸음을 나가야하는 것이라 언제나 탄식을 마지않습니다.”⁷²⁾

이상에서 보듯이, 김정희는 인간의 문화는 실은 철저히 학습되고 계승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재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발되고 계승된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철저히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낙후된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묻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⁷³⁾ 그것은 제주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제주도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촉발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도도 제주도에도 문화의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시재(詩才)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 서울의 양자 상무(商懋)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특별히 제주유생 이시형(李時亨)을 부탁하는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⁷⁴⁾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김정희였고, 따라서 유배지에서도 문화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화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하다는 것은 사도(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곧 교사의 권위문제이기도 하다. 추사는 그러한 권위를 독서활동을 통해 드러내고 지

72)金正喜,『阮堂先生全集』,卷4,與張兵使寅植,“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果有慧識超異者否 此中大病在安於惰 欲向泰山頂上再進一步 每不已”; 양진건(2003), 전계서, p.98에서 재인용

73) 그는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신속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예로 “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走之初來耶頗示之以九經之色說之以文選之理皆恍不人如蚊嘴鐵壁或有來問者是史要聚選不爾則某題之頭項當作如何蓋其平日見聞不出此三家村中都都平丈耳若有處官師之尊以大力量順風一呼齊變魯變恐似不難”라고 하였다.(양진건(2003), 전계서, p.99)

74)金正喜,『阮堂先生全集』,卷2,“此邑李生時亨年少才逸洪意欲此學其志頗銳不可阻奪使之上去試與同研雖其見聞不廣若使磨足以傲此地不讀者耳其行從船而去似遲緩矣”; 양진건(2003), 전계서, p.99에서 재인용

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⁵⁾

이러한 추사의 교학활동을 통해서 추사의 교학사상을 살펴보면 추사는 국가가 발전하는 길은 위정자(爲政者)의 윤리의식, 정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곧 교육의식인 것이다. 그의 교육적 관심이 아주 하찮은 자질구레한 것이고 미천한 사람들에까지 미쳐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러한 교육의식의 연장에 서서 추사는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교학활동을 통해 문하(門下)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은 스승과 제자가 진실로 상감(相感)하면 단 하루의 만남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관계로 이어진다(일일위사종신불망(一日爲師終身不忘))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증거이다. 이들 제자들은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문풍진작(文風振作)에 중요한 세력이 됨으로써 새로운 향당문화(鄉黨文化) 형성의 밑거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의 사상적 기저에는 특히 가르침의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스승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그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9년여의 유배기간 동안에 다대한 책읽기의 정진을 수범(垂範)함으로써 교학활동의 제(諸)장면에서 책읽기의 교육사상적 함의를 중요하게 재현하였다. 그러한 재현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그는 논쟁정신(論爭精神)의 지속을 가열시킴으로써 교육사상의 또다른 능동성을 확보하였다. 추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敎學思想)은 조선후기의 시대적 문제의식과 제주유배의 상황적 문제의식의 결과 산출된 실학사상의 추사다운 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스승의 역할 강조, 경험주의적 인식론, 책읽기, 논쟁정신의 교육사상은 추사가 처했던 당대 문제 상황의 해결적 기반을 구축하는 탐구와 모색, 개혁과 극복의 방안이다. 추사는 말하자면 현실문제를 타결하는 첩경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즉 교육(敎育)을 강조한 것이다.⁷⁶⁾

75) 양진건(2003), 전계서, p.100.

76) 양진건(1992), 전계서, p.213.

2. 김윤식의 유배생활

김윤식(金允植)은 한말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역사적 격변기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김윤식을 온건개화파로 지목하듯이 그의 행적은 급진개화파로 불리는 일파와는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청나라의 연계선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개화파는 집권층에서 소외된 가문의 장년층(壯年層)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청의 세력에 편승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좌절시킴으로써 수구파(守舊派)에 일조(一助)하고,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에 걸친 청의 종주권 강화와 보수파의 반동세(反動勢)를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관료로 활동하던 김윤식은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에 따라 친러파 내각이 성립되자 명성왕후 시해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고 1897년 제주도 중신유배에 처해져 제주도의 민요(民擾)가 확대되기 전 1901년 6월까지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김윤식의 유배생활은 김정희와 같은 전통시대의 사대부들처럼 자기학문의 심화와 후진 양성 내지는 자기 수양의 계기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의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에서 보듯이 바깥세상에 온 신경을 쏟고 정세분석에 치중하는 등 이전의 사대부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유배생활관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말 격변기 부침(浮沈)과 영욕(榮辱)의 시류적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김윤식의 제주 유배생활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시회(詩會) 「굴원(橋園)」의 모임과 활동이다.

「굴원(橋園)」시회(詩會)는 1898년 4월 22일 김윤식의 적소(謫所)에서 첫모임을 가진 이래 유배인 7명, 제주도 거주 육지인논객(陸地人論客) 5명, 그리고 10여 명의 제주사람을 회원으로 해서 그 해 그믐까지 20여 회에 걸쳐 시작활동(詩作活動)의 모임을 가졌다.⁷⁷⁾ 애초 유배인들이 무료를 달랠 요량으로 추진하였던 이 모임에는 점차 시문(詩文)

77) 金允植, 「續陰晴史」 卷上 참조. 詩會의 회원으로는 謫客으로 金允植, 李承五, 徐周輔, 鄭丙朝, 韓善會, 李容鎬, 金思燦이 있고 陸地人으로 鄭顯龜, 黃炳郁, 吳慶林, 羅寅永(喆), 柳英錫이 있으며 제주인으로 金炳潤(胤), 金秉夏(鍾河), 金膺鎰, 金膺彬, 李肯植, 洪鍾時, 成俊鎬, 金熙斗, 崔昌淳(元淳), 金昌鎬, 張奎烈이 있었다. 金允植의 詩는 「瀛島稿」, 「詩餘學步(詞)」라는 詩集으로 文集『雲養集』에 분류, 편집되어 있다.

에 관심을 가진 제주사람들도 가입하여 시작활동(詩作活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 문화개발(文化開發)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김윤식의 시작(詩作)은 경술(經術)(도)이 탈락된 문장을 양산함으로써 싱겁고 기약(氣弱)한 글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⁷⁸⁾ 이는 국초(國初) 이래 이상이 되어온 도문일치(道文一致)의 정통적 문학론(正統的 文學論)이 쇠퇴하였음을 뜻하고 동시에 유배적 상황에 처한 한 지식인의 피폐(疲弊)한 수성(惰性)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 김윤식의 유배를 전후하여 빈번했던 제주민요(濟州民擾)들이⁷⁹⁾ 그의 행동반경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김윤식의 시작(詩作)만이 아니라 개화교학활동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제한적이었던 김윤식이 유배생활 동안 만난 오경림(吳慶林)은 개화운동과 관련이 있다. 오경림은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이었던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등에게 개화사상을 고취시켰고 김정희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역관(譯官) 오경석(吳慶錫)의 동생이다. 또한 그는 3·1운동 민족대표의 한사람인 오세창(吳世昌)의 숙부이기도 하다. 오경림은 고종(高宗)때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글씨와 그림에 뛰어난 인물로, 형 오경석의 학문을 가학적 전통(家學的 傳統)으로 계승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개화론자인 김윤식이 이끄는 시회(詩會)에 용이하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나인영(羅寅永)은 오경림과 함께 굴원시회(橘園詩會)의 회원으로 김윤식과 교분(交分)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 제주사람들과도 종유(從遊)한다. 나인영은 이때 김윤식과 함께 민족종교로서 대종교(大宗教) 창시의 예비적 논의를 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1909년 나인영이 대종교를 창시하자 김윤식은 곧 입교(入教)하여 교주(教主) 나인영을 원조하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김윤식과 오경림, 그리고 나인영 등과의 교분은 시회에 출입하였던 제주사람은 물론이고 그밖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교학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된다.⁸⁰⁾

78) 양진건(1990), 전계서, p.265.

79) 庚寅民亂(1890), 丙申民亂(1896), 房屋七亂(1898), 辛丑民亂(1901) 등의 유발이 그것이다.

80) 양진건(1990), 전계서, p.266.

3. 박영효의 유배생활

박영효(朴泳孝)를 비롯한 김옥균(金玉均) 등은 일본을 통한 개화를 모색하면서 급진적 성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급진개화파로 지목된다. 그들은 노론(老論) 중에서도 핵심 집권층의 젊은 자제들로, 당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던 중인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들은 과격한 방법으로 일본을 통한 개화를 서두르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망명 또는 죽음의 운명을 맞는다. 박영효는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을 하였다가 갑오개혁으로 일시 귀국, 그러나 을미사변으로 한번 더 일본에 망명을 하게 된다. 1907년 박제순(朴齋純) 내각의 알선으로 다시 귀국, 죄가 용서되고 이완용내각의 궁내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고종의 양위(讓位)에 반대했다는 것과 선위(禪位) 반대운동을 꾀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1년간 유배형에 처해진다. 그의 금고형기(禁錮刑期)는 1년간이었지만 형기가 끝나도 그대로 제주도에 머물러 3년이 지난 1910년 6월에야 출륙하였다.

박영효의 급진적 개화사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있다. 일본 근대화 사상의 원조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박영효 등 급진개화파 모두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학육성과 사학중립론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거둔 최대의 교육적 성과인데⁸¹⁾ 이러한 교육계몽주의적 영향이 박영효 등의 개화파에게 주어진 것이다.

박영효의 제주 유배생활에서 행해진 개화교육활동은 원예농사와 관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밭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지역으로 대맥(大麥)과 조(粟)가 대표적인 작물이었다. 그런데 박영효는 제주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풍토 등을 고려하여 일반농사보다는 특수원예농업이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여러 가지 과수를 심고 원예작물을 재배하였다.⁸²⁾ 이는 20여년의 일본 망명생활에서 얻은 견문 각지(見聞覺知)의 결과이다. 감귤류를 비롯하여 감, 비파, 대추, 석류 등 과수와 양배추, 양파, 토마토, 무우, 당근 등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는데 일부 실패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다. 박영효는 재배에 성공한 작물에 대하여는 제주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하여 심도록 했으며 아울러 식생활의 개선도 강조했는데 이는 실생활과 관

81)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1987), 「교육사상가평전-동양편-」, 교학연구사, pp.178-197.

82) 濟州道(1988), 『濟州先賢誌』

런된 개화교학활동이다.

박영효의 이러한 활동은 아직 농촌개혁운동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예작물의 권장을 통해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구조를 자극시켰다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일이다. 고립성과 특수한 자연적 조건에 기인한 제주도 농업의 전통적 모습이 박영효의 권장으로 원예작물이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주도 농업사적 측면에서 큰 변화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영효의 활동은 농촌계몽운동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계몽운동은 교육사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교육의 고전적 양식 가운데 하나인 사회개량 교육개혁운동의 주요한 흐름이었다.⁸³⁾ 즉, 박영효는 유배기간 동안에 농촌개량주의적인 개화교학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제주사람들에 대한 계도는 원예농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운과 국제정세 등의 시국관은 물론 근대사상의 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에 공감하여 박영효의 주변에는 많은 제주사람들이 모여들어 학문적인 질의(質疑)와 토론을 나누었다.⁸⁴⁾

박영효와 교분을 나누었던 제주사람 가운데 안병택(安秉宅)과의 관계는 상이한 위상의 사상상이 공존했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안병택은 기정진(奇正鎭)의 손자인 의병장 기우만(奇宇萬)의 문하(門下)였다.⁸⁵⁾ 또한 그는 기정진의 문인(門人)이며 당대 남방의 사표(실남사표(實南師表))로 칭송이 컸던 안달삼(安達三)⁸⁶⁾의 아들이기도 했다. 기정진은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충격이 시작되자 정통 성리학(正統 性理學)의 사상적 기초위에 위정척사사상을 주도했던 거유(巨儒)이다. 안병택은 위정척사사상을 가학적 전통(家學的 傳統)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박영효와 안병택의 만남은 위정척사와 개화, 즉 당대의 가장 첨예했던 신구사상(新舊思想)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상적 갈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배지라는 여건으로 사상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 때

83) 양진건(1990), 전계서, p.268.

84) 金膺鎔, 金膺彬, 金昌鎬, 金鍾河, 宋斗玉, 蔡龜錫, 金亮洙, 金熙斗, 洪鍾時, 崔元淳, 張容堅, 蔡洙康, 安秉宅, 金弘翬, 金根耆 등이 그들이다.

85,86) 尹榮善, 『朝鮮儒覽淵源圖』 참조.

87)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도통연원(道統淵源)에서 비롯되는 학문적 논쟁 같은 것이 있을 풍토가 되질 못하고 그 역할이 유배지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유력한 문풍(文風)이 존재치 않았던 탓에 역설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상도 소개, 수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여건을 용광로적 역할이라고 표현했다.

문이다.⁸⁷⁾ 이를테면 16세기이후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와 대세, 조선후기 호락논쟁 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일종의 사상적 조화를 보였던 것도 같은 예이다.⁸⁸⁾

박영효는 제주사람들 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학문을 소개하였으며 고자환(高子煥)의 경우엔 양자로 삼아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⁸⁹⁾ 김정희나 김윤식에 비해 박영효는 당대의 정치적 비중⁹⁰⁾으로 인해 다양한 개화교학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영향은 제주사람들에게 개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제주도에서 근대교육은 1906년 8월에 윤원구(尹元求)가 제주군수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재임중에 근대학교 설립을 서둘러 제주목객사(濟州牧客舍)였던 영주관(瀛州館)을 개축하여 초등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 7월에는 굴림서원의 자리에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私立義信學校)를 설립, 개교하였다. 이밖에 근대여성교육기관으로는 1909년 10월 천주교신부 구마필(具瑪瑟)이 설립한 신성학교(晨星學校)가 효시이다.⁹¹⁾

제주도 근대교육의 태동기가 대체로 박영효의 유배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박영효의 영향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은 역사적 대세이며 시대적 변화의 추세라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아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시초로서 제주도 근대교육의 맹아는 유배인들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종종 때 유배인 이세번(李世蕃)의 후손인 이재교(李在橋)는 제주도 대정에서 인재양성과 교육구국의 급선무를 역설하고 1905년 개성학숙(開成學塾)을 설립하여 청소년 교육에 진력하였는데 그의 노력은 제주도 근대교육의 맹아적 선구로서 유배인의 영향을 계승한 예이다.

이세번은 김굉필(金宏弼)의 문인(門人)으로, 동문(同門)인 조광조(趙光祖)가 기묘사화로

88) 유배인 권진응(權震應)은 호학(湖學)의 한원진(韓元震) 학풍을 계승하였고, 유배인 이존중(李存中)은 낙학(洛學)의 이재(李縉) 학풍을 계승하였는데 제주도에서 그들의 입장은 대립되지 않고 제주학인(濟州學人)들에게 계승이 된다.

89) 양진건(1990), 전계서, p.269.

90) 유배기간 중 철종의 사위라는 직품 혜택을 많이 받았다.

91) 제주공립보통학교는 현재 제주북초등학교의 전신이며, 의신학교는 지금의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연구원(1974), 『제주교육통사』; 제주도 교육위원회(1979), 『제주교육사』를 참조.

화를 당하자 동문의 무죄를 신구항소(伸救抗訴)하다가 증종 15년 제주도에 7년간 유배되었으며 이곳에서 고부이씨(古阜李氏) 제주입도조(濟州入島祖)로서 적사(謫死)하였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대정지역의 문풍(文風)을 주도하게 된다. 후손 가운데 특히 이재수(李在守)나 이승진(李承珍)은 선대의 반체제적 이상주의 전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들인데 이재수는 신축민란(辛丑民亂)의 장두(狀頭)로서, 이승진은 김달삼(金達三)이라는 이름으로 4·3사건의 좌익계 거물로 활동을 했다. 이재교의 근대 교육운동 또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활동이다.⁹²⁾

이밖에 김윤식, 박영효 등과 교분이 두터웠던 홍종시(洪鍾時)의 아들인 홍순재(洪淳宰)가 1922년 지기(知己)들과 제주도에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명신학교(明信學校)를 설립하고, 1924년 제주청년수양회(濟州靑年修養會)를 조직하여 민족교육과 인재양성에 힘썼던 것 역시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과 관련된 근대교육운동의 또 다른 예이다. 아들 홍순녕(洪淳寧)도 제주도 개화교육의 선구자로서 근대 학교제도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홍종시와 마찬가지로 유배인들과 친밀했던 최원순(崔元淳)에게는 동생 최계순(崔季淳)과 딸 최정숙(崔貞淑)의 교육활동이 두드러진다. 최계순은 1929년부터 통산 20여 년을 모교인 제주농업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근대학문인 식물학에 관심을 기울여 제주도의 식물학자로서 널리 알려졌다. 해방 후엔 모교에서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최정숙은 제주도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인 신성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서울유학, 3·1운동 때 옥고를 치렀으며 모교인 신성학교가 개교 7년 만에 폐교되자 제주도 여성교육기관의 중흥을 목적으로 여수원(女修園)을 창설하였다. 해방 후에는 신성여자중학교 초대교장 및 제주도 초대교육감을 역임하는데 이것은 제주도 근대여성교육과 유배인의 활동이 관련된 예이기도 하다.⁹³⁾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김정희와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는 유배기간 동안 근대적 의식각성과 관련한 일련의 교학활동을 하였다. 개화사상의 발전적 연원이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김정희가 주목된다. 특히 그는 제주도에서 해국도지류의 선각적 사상을 여러 제주학인들에게 유포시키는 등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한다. 초기 개화운동에 주도적 활동을 하다 제주도에 유배 온 김윤식은 한말 격변기의 변화에 대한 사상적 대

92) 양진건(1990), 전계서, p.279.

93) 양진건(1990), 전계서, p.280.

응이 미숙했던 제주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유배를 전후하여 일어난 민란때문에 활발한 교학활동은 가능치 못했으며 시회의 모임을 통해 일부 토착양반과의 교분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교분의 영향은 가학적 전통으로 계승되고 또한 제주도 자체의 운동적 역량과 연계되어 후일 다양한 면모의 운동으로 표출된다.

김정희나 김윤식에 비해, 박영효는 교육을 국가존립의 기초로 생각했던 급진개화파였기 때문에 개화교학활동에 관한 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특히 민란의 여파로 혼란이 컸던 박영효 유배 당시의 제주도 실정에, 치안을 위한 교육이라는 박영효의 지론(持論)은 개진(開陳)의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이 지대할 수 있었다. 결국 그의 영향은 농촌개량주의로 개진된다.

김정희나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의 활동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화사상의 전체적인 명맥(命脈)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제주도인의 근대적 각성에 공통적으로 기여를 한다. 제주도인의 근대적 각성은 조천만세운동과 같은 국권회복운동은 물론 교육구국(教育救國)의 차원에서 근대교육기관의 설립 등 여러 가지 맥락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김윤식, 박영효의 개화교학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주 유배인들의 개화교학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선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제주 유배인들의 개화교학활동을 전후하여 제주 교육사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전개구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⁹⁴⁾

94) 양진건(1990), 전계서, pp.281-282.

IV.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영향과 학습자료화

1. 유배인의 유배생활의 교육적 영향

제주 유배인들의 개화교육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죄인이라는 유배인들의 제한된 신분과 역할 때문에 일부 한정된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배인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영향은 제도적이기보다는 계몽적이며 형식적이기보다는 비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당대 제주도 상황에서는 큰 교육적 자극이며 의미 있는 영향이었다.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유배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으로 제주도 지식인들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제주도 지식인들이 우리 안치되어 있는 유배인들을 직접 예방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을 목격하고 또 독서목록을 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영향은 다양하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일련의 계몽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 약 5백년을 통하여 숭한 인사가 제주도에 유배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도 컸다. 학문과 지덕을 겸비한 정치가이자 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유배됨으로써 지방인 자제들이 그들에게 사사(私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종 때 김정(金淨), 광해군 때 정온(鄭蘊), 현종 때 신명규, 숙종 때 김진구·김춘택, 영조 때 조관빈·임징하, 정조 때 조정철(趙貞喆), 현종 때 김정희, 고종 때 최익현·김윤식·박영효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지방 자제들을 적소(適所)에 모으거나 사숙(私塾)을 마련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전수했다. 따라서 뒤에 그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적소 부근에 유허비를 세

우거나 사당을 세워 그들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배인들은 제주도에 유배된 뒤 저술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정은이 『덕변록(德辨錄)』·「망백두시(望白斗詩)」·「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애족(愛君愛族)의 정을 나타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집 중에는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된 것들도 있다.

김정의 『충암집(冲庵集)』, 정은의 『동계집(桐溪集)』, 이건의 『규창집(葵窓集)』, 신명규의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 김춘택의 『북헌집(北軒集)』, 임징하의 『서재집(西齋集)』, 조관빈의 『회헌집(晦憲集)』,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김정희의 『완당집(阮堂集)』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외에, 왕족이나 고관·현직 등 상류사회 인사들의 유배와 그 종자(從者)들의 제주 왕래는 의식주의 개선이나 언어와 예절, 습속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⁹⁵⁾

현재 제주도 남제주군에 유배문화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에 유배됐던 인물들이 살았던 적거지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를 토대로 ‘제주유배문화관 기본계획’을 2004년 3월 30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남제주군 대정읍 추사 김정희 선생 적거지 인근 9만 9000㎡의 터에 제주유배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유배문화관 조성사업에는 전시실과 영상관, 체험실 등을 갖춘 기념관 2032㎡, 적거지 1377㎡, 추념단 367㎡, 기념광장 2753㎡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추사 선생이 즐겨 그린 수선화 광장 4589㎡ 및 야외전시장, 잔디광장 등도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유배문화관 건립과정에서 『제주유배사』를 펴내고, 유배인들이 체류했던 적거지와 유배지 등 유적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 관련학자와 유배인 후손 등으로 ‘유배문화 조명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배인 재조명사업 및 유배인 관련 유물기증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2004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제주지역에 유배왔던 인물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제주 유배인은 200여명이다. 이 가운데는 광해군 복위를 꾀한다는 고발로 인해 유배된 선조의 7번째 아들인 인성군(1628년)과 광해군(1637년), 83살의 고령에 유배된 송시열(1689년)과 추사 김정희, 최

95) 국립제주박물관 편(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p.153.

익현, 김운식, 박영효 등 주요 유배인만도 49명으로 파악됐다. 유배인의 신분도 왕족과 학자, 정치가 등 지식인들은 물론 도적과 국경을 넘다 잡힌 범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⁹⁶⁾

2.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자료화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도 그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한 다음, 그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를 개별화하고 학습을 개성화하며 학생들의 활동을 자율화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그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배경에서도 「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주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찾아 배우는 교육’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창의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전인 교육의 실천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신장’과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험적 지식을 자기화하는데 필요한 학습 방법과 학습 기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 면에서 조선시대에 유배지로 정착되면서 지역인사들과 유배인들의 교류로 한국 유학사의 양대 학파인 기호학과와 영남학과가 분포하며 이를 상징하는 적지 않은 유교 문화유산이 제주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어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활용 가치가 매우 크

96)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적 발전 방향으로의 계승이 부족하였고 교육이나 특성화자원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학습 실태를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유배문화를 포함한 유교 문화자료를 개발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체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를 위해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과 현장체험 학습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향토사학습

최근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 자체를 교육하는 한편 역사로써 인간을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역사교육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식과 교육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사 학습과의 연계, 학생중심의 주체적 학습, 자기인식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향토사⁹⁷⁾학습은 그러한 역사교육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양상이다. 역사를 교육한다 함은 「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와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이는 역사교육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바르게 인식함과 더불어 역사적 방법을 탐구하고 통찰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방법 의 하나가 바로 향토사학습⁹⁸⁾인 것이다.

향토사학습이란 방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역사 탐구의

97) 향토사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 등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향토사란 구래의 전통적인 지역사연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방사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이기에 사회과학 부문에서 객관성을 지닌 지역사란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냐 하는데 있는 것인지 그 이상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큰 의미의 지방사가 역사교육에 사용될 때는 향토사로 일컫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역사교육에서 향토사학습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사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견해에 동조하며 향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고효숙, 양진건(1995), 「향토사학습의 내용선정과 조직-중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5, p.167)

98) 향토사학습이란 향토사 자료의 이용을 통한 역사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상계서, p.168)

과정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향토사를 중심으로 향토사와 민족사의 문제를 연관하여 성찰하는 학습으로 향토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족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습이다.⁹⁹⁾ 일반적으로 향토사는 민족의 역사가 축소된 것이며 국가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사 이해에 유용한 접근방식을 마련해 주는 이른바 국가사의 보조학문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사는 국가사의 보조적 역할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역사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향토사를 국가사의 일부나 보조학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¹⁰⁰⁾ 따라서 향토사 연구는 중앙지향, 권력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향토사회의 주체인 민중의 역사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정치사 중심에서 문화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향토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경향 변화¹⁰¹⁾에 염두를 두면서 전체 민족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루어왔고, 이에 따른 민중의 생활상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8.15 해방이후 초·중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향토나 지역 사회를 다루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인 「교육과정의 지역화」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2002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발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도 일관되게 향토 사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향토 사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 시간의 부족, 향토사 교재 개발의 미흡, 교육 당국의 무관심에 가까운 지원의 부족 등으로 향토사학습의 체계적 시도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재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토사교육을 통한 한국사 교육의 확대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바 향토사료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역사교육에서의 향토사 학습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학습내용이 되면서도, 국사의 내용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담

99) 조태형(1992), 「향토사료의 재구성 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p.10.

100) 이원순 외(1983), 『역사교육론』, 삼영사, pp.291-292.

101) 고효숙, 양진건(1995), 전계서, p.168.

당하고 있으므로 국사와의 연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향토사학을 전개할 때 주요 자료가 되는 것이 향토사료라고 볼 때 향토사료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역사학에 있어서 사료란 “역사가와 사실을 매개해 주는 자료로서 인간 행동과 사상이 남긴 흔적의 총체이며, 그것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과거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⁰²⁾ 그런데 향토사료의 경우는 학문적 연구 자료로서 학문의 분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교육자료로서 피교육자를 위한 교육의 도구로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향토 사료의 분류 방법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¹⁰³⁾

-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과 이에 준하는 참고 자료를 포함한다. 국보, 보물도 이에 속한다.
-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과 그 밖에 무형 문화적 소산을 칭한다. 인간문화재도 이에 포함한다.
- 3) 기념물 :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유물을 포함한 요지(窯地)와 그 밖의 사적지 등의 역사적 기념물로 한정한다.
-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기구, 가옥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원순은 여기에 제도적 자료와 인물 자료를 분류하고 역사적 인물이나 현재 생존한 인물 모두가 향토사 학습에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⁰⁴⁾

현행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나타난 특징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사 교과에서는 향토사학을 보다 강조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항목을 교과목표에 설정하고¹⁰⁵⁾ 지도상의 유의점에 향토사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 중심형 교육과정으로서는 향토사를 교육과정 내용으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향토사 내용을 적절히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향토의 일원으로서 역사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의 육성과 역사 의

102) 한상준(1980), 「역사교육에 있어서 사료학습의 접근 방안」, 『경북사대 교육연구지』 22, p.2.

10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편(1989), 『한국사회과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p.323.

104) 이원순 외(1983), 전계서, p.294.

105)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7.

식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¹⁰⁶⁾

향토사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에서 친숙한 것과 친숙해질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사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또한 향토사학습의 필요성은 새 역사교육과 그에 따라 사료 학습을 강조하는 경향에 의해서도 찾아진다.¹⁰⁷⁾ 이 경우 특히 역사적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이상과 같은 새 역사교육의 주장과 사료학습의 원리를 잘 충족시켜 주는 학습방법 가운데 하나가 향토사학습이다. 또한 향토사학습의 필요성은 학생 그들에게 즉각적이고 관련된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기초한 환경학습¹⁰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사교육은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의 학문 중심 교육사조는 지식의 구조적 접근과 탐구적 학습과정에 의한 능력의 배양을 내세운다.¹⁰⁹⁾ 즉 역사교과에서 역사학의 성과인 역사적 사실을 지식이라는 중간 언어로 역사 그 자체가 아닌 역사적 지식의 수수(授受)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역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본 사실과 그 사실들 위에서는 개념화에서 일반화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을 통해 역사 그 자체를 이해하며 역사를 탐구하는 능력을 체득하고 역사적 태도를 가지고 역사 전개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도록 교수-학습이 전개되어야겠다.¹¹⁰⁾ 따라서 학문 중심의 교육사조에서는 교육을 지식, 정보의 획득만이 아니라 그 지식, 정보에 도달하는 탐구과정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결국,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가 향토사학습이며 이것은 학생들의 의식발달 측면에서도 성취 가능한 단계임이 연구되고 있다. 향토사학습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사는 향토사회인의 문제해결의 역

106) 상계서, p.27.

107) 새 역사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존스(Jones)는 “새 역사 교육은 내용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통 탐구법이라 불리며 자료의 사용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다. 퍼스(Firth)는 “새 역사 교육은 탐구와 교수-학습의 연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08) Martin and Turner, ed(1973), ‘Introduction’, “Environmental Studies”, Plymouth Clarke:

Dobe & Brendon Ltd, pp.1-9.

109) 강우철(1980), 『역사의 교육』, 교학사, p.314.

110) 조태형(1992), 전계서, p.13.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향토의 고문서, 유물, 유적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향토의 역사과정을 학습하면서 그 속에서 향토사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추상적인 이해를 지양하고 구체적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써 학생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그들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직접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탐구와 발견의 태도를 발달시키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경계를 없애도록 도움을 주어 학생 자신의 지역과 학교 밖의 역사적 환경을 조사하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넓은 주제와 피상적인 학습에 비해서 실제 사람과 실제 상황을 깊이 있고, 상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향토사학습에서 학생은 주위의 유물, 유적을 접촉하고 방문하는 등 향토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를 통하여 역사의 증거가 그들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대해 아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전달된 진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맹목성의 위험을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일반적인 개념적 사항이 자신이 사는 향토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향토사료를 역사학습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내용, 사료의 존재상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전체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토사를 지도하는 경우, 둘째, 향토사를 직접 학습대상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전체사를 이해를 가능하도록 향토사를 지도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를 위한 지도방법으로는 분산적 접근방법이 있고, 후자의 경우를 위한 지도방법으로는 주제 접근방법이 있다.¹¹¹⁾ 분산적 접근방법¹¹²⁾이 분석적 태도라면 주제 접근방법은 종합적 입장에서 향토사료를 선정하고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시수업과정¹¹³⁾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향토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3단계 수업과정에 따른 일반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시간도 5~10분 정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 접근방법이란 향토사교재를 하나의 주제로 내세워 이를 중심으로 향토

111)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 합집, pp.24-25.
 112) 분산적 접근방법이란 연간 지도 계획에 따라 통사 학습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향토 사료를 활용하고 계속 본시수업을 전개해나가는 방법이다.
 113) 도입, 전개, 정리로 진행되는 수업과정으로서 이때 향토사료의 활용은 각 단계마다 가능하며 교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사실을 전체사의 발전과정 속에서 바르게 파악하는 한편, 향토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향토사가 전체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역사학습 전체를 통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향토사 교재로서 전체사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를 5~6개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한 개의 주제를 1~2시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¹¹⁴⁾

이상의 절차에 따라 향토사 교재 단원을 전개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본시 수업 모형이다. 제5단계인 지도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향토사학습 수업모형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문제 제시	→ 자료 결정	→ 문제 추구	→ 정 리	→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주제 · 목표 · 과제 제시 • 문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 정리 · 정선 • 문제해결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비판 • 분석 · 해석 • 종합 · 발표 •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조언 • 자료 정리 •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흥미도, 이해도 • 능력, 태도 • 일반화

2) 현장체험학습

전통문화 가운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사유체계와 행동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유교윤리는 비록 개체적 특수성의 상실, 주체적 자아의식의 결여, 혈연중심의 족벌주의, 신분중심의 차등주의 등의 한계를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갈등관계를 노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유교윤리는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

114) 송춘영은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에서 1회 2~3시간, 연중 4~6회 정도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시하였지만 현행 국사 교과 연간 수업시수가 68시간임을 고려한다면 한개 주제에 2~3시간을 배당한다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조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원리인 공동체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21세기형 자녀교육의 이상인 논리적, 관계적, 확산적 사고의 배양은 학교나 학원에서 일시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사고를 통해 습득되는 것들이다. 오늘날 가정교육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드높은 마당에 이러한 교육의 이상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은 전통적 유교의 가정교육에서 추구하던 교육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교육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험학습이란 ‘한정된 학습공간과 경직된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체험의 장을 넓히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활달한 기상과 풍부한 정서, 건강한 신체, 창의적인 지성을 계발하는 학습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교내에서의 각종 실험, 실습, 체육활동 및 공작, 토의, 취미, 발표회 등의 교육활동은 물론 교실 밖에서의 자연환경, 지역시설, 문화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찰, 조사보고, 탐방, 견학 등의 체험활동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¹¹⁵⁾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의 상황에서 실물을 접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조작해 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이다. 여기서 체험이란 국어사전적 해석으로 ‘자신이 몸소 경험함’,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과 경험대상으로서의 객체적인 사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학습이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얻어지는 학습으로 교실에서 행해지는 학습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활동은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 활동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체험학습은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져야만 창의성이 발달한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생의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인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구정신이야말로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창의성을

115) 조난심·허경철(1994), 「인간성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p.59.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영역의 지식과 기능적 기초, 특수영역의 지식과 기능적 기초, 과제집착력, 확산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창의력의 구성요소에 주목할 때 체험학습에서 창의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한다.¹¹⁶⁾

첫째, 일반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를 넓고 깊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런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은 다양한 과목의 교과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특정분야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갈고 닦게 한다. 기초 공통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개성을 위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과제 집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과제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는 과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율적이고 자기주도로 학습하게 될 때 가능하다. 넷째, 확산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실수의 두려움이 없이 안정된 심리상태를 보장하여 다양하게 생각할 기회를 자주 준다. 다섯째, 논리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한다.

이밖에도 창의성교육과 체험학습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은 창의성교육을 어렵게 한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정해진 진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나 다양한 탐구활동의 시도가 불가능하다. 둘째,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은 학생의 능력수준, 소질, 관심 등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끌만한 주제적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¹¹⁷⁾

현장체험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제주유배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서 맑고 건강한 품성을 가지게 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학습과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바른 인성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넷째, 체험학습 시간마다 보고서 작성

116) 강영혜(1999), 「체험학습의 이론적 기초」,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학회, 제7집 제2호, p.13.

117) 상계서,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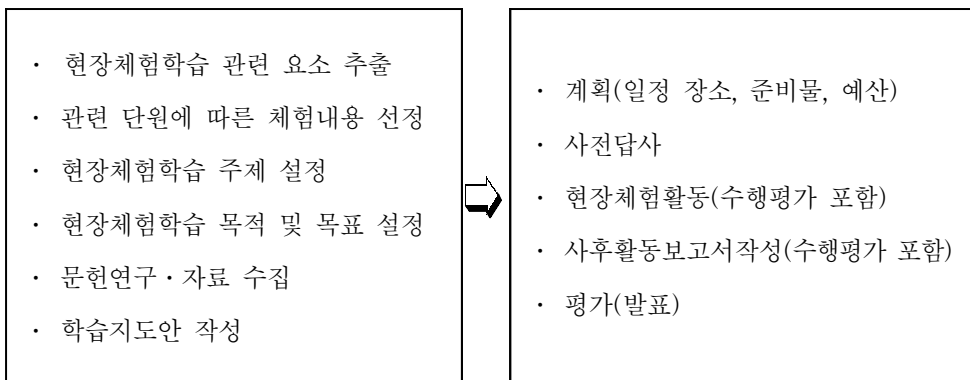
을 통해 보고 듣고 발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의 결과를 내면화하는 살아 있는 공부가 된다. 다섯째, 듣는 수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체험하는 공부를 하는 동안 창의력이 향상된다. 여섯째,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바라보게 하여 문화의 발전이 민족의 발전임을 알게 하며,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학생으로 길러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학습효과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간편하게 CD로 보급하여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출력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의 연구방법과 현장체험 학습의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제주유배문화 현장체험학습 연구방법

1. 제주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통한 제주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 문화적 특성과 유배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결, 파악한다.
2.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유배 온 인물의 면모를 살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제주유배의 시기별 특징을 살핀다. · 조선시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유학자의 계보에 대하여 살핀다.
3. 제주유학의 특징을 살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유학의 특성과 육지의 유학인맥과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그 특성과 인물을 연결하여 제주유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4. 제주유배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하여 계승할 유배문화를 도출한다. · 도출한 유배문화를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표4〉 현장체험학습의 절차



다음으로 지역체험학습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인 영역으로는 행정구역상 남제주군과 대정읍의 추사 적거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제주군과 대정읍지 및 대정향교지 등을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조사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장조사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사진촬영, 약도 작성, 현지 주민과의 대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위치, 연혁, 건축양식, 기타 특징 및 제향되고 있는 인물, 각종 행사 등의 유배문화를 포함한 유교문화 전승사업을 정리하며 이를 통하여 본받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살핀다. 현장체험학습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현장체험학습 교수·학습지도안

지도대상	고등학교 1학년	활동영역	국사 현장체험학습	차 시	8 / 12
장 소	대정읍 안성리 추사격거지	관련단원	3-4 정치상황의 변동	지도일시	2004.05.29
학습목표	1. 김정희의 유배 배경을 말할 수 있다. 2. 김정희와 대정향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제주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지도안 ○ 현장체험학습안내문 및 학습지 ○ 관련 참고문헌 및 자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도구· 사진기· 메모지· 참고자료 	
사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수업의 필요성 인식하기 · 지역역사체험학습의 방법과 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하기 · 수업 중 유의사항 주지하기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현장으로 이동 · 수업 전개 과정 확인시키기 · 역할과 사전지식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있게 이동 · 수업 전개과정을 확인하기 · 역할 인식하고 사전지식 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유발한다. 	
전 개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한 자료와 학습지를 보면서 설명 듣기 -김정희에 대한 인물 설명 -김정희의 유배 배경 -추사체 완성과 제주 유배생활 -제주에 미친 영향 -현재 입장에서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 -대정향교와 김정희의 관련성 · 모둠별 현장체험학습 활동하기 -각 모둠별로 관찰, 기록, 및 사진 촬영 -구조 및 유물 스케치 -관찰, 조사한 자료 정리 -발표 및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전개한다. · 학생의 관심이 집중하도록 한다. · 역사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정 리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소감문 제재 준비 -새롭게 안 것, 감명 깊은 것, 지역 문화에 대한 긍지를 느낀 점 · 체험학습지 기록 · 현장체험 활동 장소 환경 정화활동 실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활동 중 각종 자료를 열심히 기록·수집하였는가? · 보고서 및 소감 발표 내용이 충실한가? · 역사학습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V. 결 론

탐라국 멸망이래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된 일종의 유배 지식인들의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저항정신인 것이다.

한편,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많은 유배생활을 독서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한 유배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유배인들은 지역민들과 교류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기게 되며 특히, 김정희 같은 경우는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추사체를 완성하는 성과를 남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김정희와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는 유배기간 동안 근대적 의식각성(近代的 意識覺醒)과 관련한 일련의 교학활동을 하였다. 북학과 실학사상에서 출발하는 개화사상은 김정희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는 제주도에서 서양문물을 소개한 해국도지류의 개화사상을 지방민들에게 유포시키는 등의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한다. 초기 개화운동에 주도적 활동을 하다 제주도에 유배를 온 김윤식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사상적 대응(思想的 對應)이 미숙했던 제주도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유배를 전후하여 일어난 민란 때문에 김윤식은 활발한 교학활동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시회의 모임을 통해 일부 토착양반과 교류를 하게 된다. 김정희나 김윤식에 비해, 박영효는 교육을 국가존립의 기초로 생각했던 급진개화파였기 때문에 개화교학활동에 관한 한 그 영향이 매우 컸다. 특히 민란의 여파로 혼란이 컸던 박영효 유배 당시의 제주도 실정에, 치안을 위한 교육이라는 박영효의 이론은 제주 근대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도입된 수준별 심화보충학습은 학교현장에서 그 지방 혹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교과에 걸쳐 향토문화자료의 개발과 그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운영에 있어 보충학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유배문화가 포함된 향토문화자료를 교과에 투입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토사학습의 실제 적용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안은 먼저 교과별, 학년별, 과목별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토문화(민속)자료실 혹은 향토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과 같은 물적 공간을 두어 교과교육 이외에 전시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토문화자료는 인터넷과 시청각기자재자료, 예를 들면 V.T.R 자료, 슬라이드 및 사진자료 또는 O.H.P 등의 시각자료와 녹음 등 청각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유배문화관 건립과정에서 『제주유배사』를 펴내고, 유배인들이 체류했던 적거지와 유배지 등 유적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유배문화관 건립과 더불어 유배문화 학술대회와 예술제를 매년 개최해서 제주유배문화가 제주문화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시기별로 제주지역의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조선사회 제주지역에 형성된 유교문화와 유배문화의 관련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배문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배문화가 제주지역에 미친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유배문화의 기능적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유배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배문화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체험적으로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가령, 국어교과와 관련된 그 지역의 유배문학작품, 사회교과 특히 국사과목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향토사학습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학교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經國大典』

『國朝人物考』

『大典會通』

『承政院日記』

『小學』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耽羅觀風案』

『耽羅錄』

姜 瑋, 『姜瑋全集』

金錫翼, 『耽羅紀年』

金允植, 『續陰晴史』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金平默, 『重菴集』, 『重菴別集』

南萬里, 『耽羅誌』

吳文福(1989), 『瀛州風雅』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李源祚, 『耽羅誌草本』

李元鎮, 『耽羅志』

崔益鉉, 『勉菴集』.

濟州道(1988), 『濟州先賢誌』

濟州道教育研究院(1974), 『濟州教育通史』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濟州教育史』

강영혜(1999), 「체험학습의 이론적 기초」,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학회, 제7집 제2호

강우철(1980), 『역사의 교육』, 교학사.

- 고효숙, 양진건(1995), 「항토사학습의 선정내용과 조직-중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5.
- 교육인적자원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2001),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제주박물관 편(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 김문환(1998), 『지역문화발전론』, 문예출판사.
- 김동수(1995), 「유배문화론의 부당성」, 『사회문화리뷰』 1995년 10월호.
- (1996), 「호남소외론의 허와 실」, 『호남의 역사와 문화강좌 자료집』, 전남대학교박물관.
- 김동진(2001), 「조선시대의 제주사회: 유배문화와 방어유적」,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 김응현(1981),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 김정호(1983), 「유배와 은둔이 남긴 유산」, 『전남의 전통문화』 상.
- 박만규·나경수 편(1999),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출판부.
- 박미선(2002), 「‘호남문화론’에 대한 제 논의와 전망」, 『호남문화연구』 31.
- 박석무(1996), 「해남·강진의 유배지문화」, 『역사와 지성』
- 소재영(2003), 「유배인의 문학」,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항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 합집.
- 양순필 외 15인 지음(1991),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 (1992),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 (1983), 「제주유배한시연구」, 『제주대논문집』 16.
- (1982), 「조선조 유배문학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 양진건(1999),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 지성사.
- (2002), 「勉菴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 25.
- (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4.
- (2002),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 (1990), 「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민족문화연구』
- (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 (1986), 「朝鮮朝 濟州敎育思想史 研究—道統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
- (1992),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9.
- 이원순 외(1983), 『역사교육론』, 삼영사.

- 이해준(1987), 「진도유배인물지」,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전국역사교사모임 편(2003), 『변방 제주섬에서 본 한국사』
- 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 정후수(1990), 『朝鮮後期中人文學研究』, 깊은샘.
- 조난심·허경철(1994), 「인간성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조태형(1992),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2000), 『제주오현조사』
- 최완수(1986), 「秋史實紀」, 『潤松文華』30號, 韓國民族美術研究所.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1987), 「교육사상가평전-동양편-」, 교학연구사.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편(1989), 『한국사회과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한상준(1980), 「역사교육에 있어서 사료학습의 접근 방안」, 『경북사대 교육연구지』 22.
- 한석지 외 5인 지음(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5.
-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 현상윤(1977), 『한국유학사』, 민중서관.
- 후지쓰카(藤塚鄰)(1975), 『清朝文化東傳の研究』, 일본:國書刊行會.
- Martin and Turner, ed(1973), 'Introduction', 'Environmental Studies', Plymouth Clarke Dobe & Brendon Ltd
- <http://100.naver.com/100.php?mode=body&id=141837>

〈부표 1〉 향토사학습 본시수업 모형

단계	과정	시간 배당	자료명	유의점
①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주제·목표·과제제시 문제 파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사교재 단원의 개요와 수업전개방법 설명 주제·목표·과제를 분명히 제시 목표, 과제(문제) 파악
②자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수집 및 정선 과제 해결 방법 제시 및 문제 해결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사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함 최적 자료를 정선 문제해결방안 모색
③문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분석·비판 자료해석·종합 발표·토의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선한 자료를 분석·비판·해석·종합하여 과제순으로 정리함. 해석·종합한 자료를 발표·토의함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④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조언 정리 보고서 작성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을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 보고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
⑤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적, 정의적 영역 일반화 	5~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검사 문항과 학습 후 필요한 문항을 보완하여 동시 평가 보고서 평가 전후비교법을 적용하여 결과 고찰

〈부표 2〉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7차시

대영역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중영역	3-3. 근세의 정치	소영역	3-3-2 사림의 대두와 봉당 정치
성취 기준	3-3-2-1 봉당이 조선사회에 미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필수학습 요소/ 발달학습 요소	※훈구와 사림 ※사림의 정치적 성장 ※봉당의 출현 ※봉당정치의 전개 ※봉당정치의 성격 ※이조전랑의 역할에 대한 설명 ★제주도의 향교와 서원(제주, 정의, 대정향교, 굴림서원 : 사액서원(오현 배향)) ★제주유배인에 대한 설명(김정, 정온, 송시열 등)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학습, 비교학습, 토론학습, 개념학습, 현장학습 · 봉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선정한 다음, 간단한 해설과 사진, 만화 등을 곁들여 연표를 꾸며본다. · 봉당과 오늘날의 정당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유배지 제주도와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이건의 「제주풍토기」를 통해 당시 제주도 생활상을 알아본다. · 정온과 광해군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당정치의 의의와 영향을 설명하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 제주유배문화의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당정치가 조선사회에 미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할 수 있다.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림세력 내부에서 학문과 이념의 차이에 따라 봉당이 형성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평가 도구	선택형, 연대표 그리기, 토론법, 보고서법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구와 사림의 대립 · 유배인들의 교학활동 · 사림의 정치적 성장 · 봉당의 출현 · 인조반정과 경신환국이후의 봉당정치 변질 				

〈부표 3〉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8차시

대영역	3.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중영역	3-3. 근세의 정치	소영역	3-3-3 양난의 극복과 대청 관계
성취 기준	3-3-3 효종대에 추진된 북벌 계획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필수 학습 요소/ 발달 학습 요소	※광해군의 중립외교 ※호란의 발발과 전개 ※북벌운동의 전개 ※최명길의 주화론과 윤집의 척화론에 대한 사료를 조사하여 토론 ※제주 오현에 대해 조사하여 토론				
학습 활동 안내	· 제작학습, 토론학습, · 북벌계획과 관련된 사실들을 조사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역사신문을 각각 만들어 본다. · 북학론의 주장과 북학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사, 발표한다. · 오현에 대해 조사, 발표한다.				
평가 기준	상	· 북벌계획이 조선의 정치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오현이 제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중	· 효종이 이완, 송시열 등과 함께 추진하였던 북벌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반청의 기운이 높아 북벌론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 도구	선택형, 역사신문 만들기, 토론법, 보고서법				
평가 요소	·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의의 · 호란의 배경 및 결과 · 주전론과 주화론 비교 · 북벌운동의 전개 과정 · 오현의 성립 배경				

〈부표 4〉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19차시

대영역	3.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중영역	3-4 정치상황의 변동	소영역	3-4-1 정쟁의 격화와 탕평정치
성취 기준	3-4-1. 조선 후기에 실시된 탕평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및 제한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필수 학습 요소 / 발달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당정치 본질 및 변질 ※ 탕평론의 배경 및 의의 ※ 숙종·영조·정조의 탕평책 ※ 탕평책과 관계된 사료를 읽고 탕평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제한점 파악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인물학습 - 강만길 외, 『한국사9』, 한길사, pp.125-133. - 『영조실록』 권51, 54. 『승정원일기』 제326책 숙종13년 12월25일: 『승정원일기』 제376책 숙종24년 정월19일 -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pp.74-75, 93-94. 				
평가 기준	상	· 조선 후기에 실시된 탕평책과 관련된 사료를 읽고 봉당정치와 탕평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및 제한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중	· 조선 후기에 실시된 탕평책 추진배경과 의의 및 제한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하	· 조선 후기에 정치적 과탄을 수습하기 위하여 탕평책이 실시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평가 도구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평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 탕평책의 제한점 · 근대의 세계특징 · 비변사 기능강화 영향 및 군사제도 변화 				

〈부표 5〉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20차시

대영역	3.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중영역	3-4 정치상황의 변동	소영역	3-4-2 정치질서의 변화
성취 기준	3-4-2. 일당전제화와 세도정치로 인하여 민중들의 항쟁이 고조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필수 학습 요소 / 발달 학습 요소	※ 일당전제화의 배경 ※ 세도정치의 전개과정 ※ 세도정치의 권력구조 및 폐단 ※ 김정희의 교학활동 ※ 조선후기 민중항쟁의 사료를 읽고 현대 집회와 비교 설명 ※ 강제검의 난, 대정현 화전민 봉기, 방성철의 난, 신축교난(이재수의 난)에 대해 설명				
학습 활동 안내	· 사료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인물학습, 비교학습, 현장학습 - 강만길 외, 『한국사9』, 한길사. pp.136-139 -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pp.77-82 - 『순조실록』 권28 순조27년 3월 병술 - 『사료로 보는 우리역사2』, 돌베개, 전국역사교사모임, pp. 357-441 - 『완당집』 - 추사적거지 탐방				
평가 기준	상	· 노론 일당전제화와 세도정치의 배경 및 폐단을 민중들의 항쟁과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김정희의 교학활동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제주도지역의 임술민란(1862)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	· 노론 일당전제화와 세도정치의 배경 및 영향을 민중들의 항쟁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 세도정치와 민중항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 도구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요소	· 일당전제화와 세도정치의 폐단 · 민중들의 항쟁사례(제주도를 중심으로) · 김정희의 교학활동 · 권력구조의 특징 · 세도정치의 전개과정 이해				

〈부표 6〉 차시별 향토사 교수·학습 성취기준과 평가기준(국사) 55차시

대영역	7. 근현대사의 흐름	중영역	7-1 근현대의 정치적 변동	소영역	7-1-1 개화와 자주운동
성취 기준	7-1-1 조선말 개화운동과 동학 농민운동 및 근대적 개혁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개화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최익현, 김윤식, 박영효의 교학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필수 학습 요소 / 발달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의의 ※ 강화도 전적지와 호국 정신 ※ 위정척사사상과 최익현의 활동 ※ 갑신정변의 성격과 의의 ※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 ※ 김윤식과 박영효의 교학활동 ※ 개화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의의 제한점을 파악 				
학습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인물학습 - 황현 『매천야록』 - 김윤식 『속음청사』 - 『한국사17』, 국사편찬위원회, pp.17-201 				
평가 기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다. · 최익현, 김윤식, 박영효의 교학활동을 말할 수 있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말할 수 있다.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정치·사회개혁에 기여했음을 말할 수 있다. 			
평가 도구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의의 · 강화도 전적지와 호국정신 ·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의 비교 · 갑신정변의 성격과 의의 · 최익현, 김윤식, 박영효의 교학활동 ·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의의 ·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xile Culture in Jeju Island
for Educational Purpose

Ko, Beom-Seok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eum, Mi-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what influence exiles in Jeju Island exercised on that region in the Chosun Dynasty in an effort to discuss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xile culture as local history learning materials that could help instill local identity in students. The subject in this study was Kim Jeong-Hui, and Kim Yun-Sik and Park Yeoung-Hyo were additionally examined.

Among many exiles, Kim Jeong-Hui was selected because he was banished for a relatively longer period of time, and seemed to have a huge impact on creating an exile culture in Jeju province. And Kim Yun-Sik and Park Yeoung-Hyo were selected additionally since they advocated Kim Jeong-Hui's enlightenment thought and were banished when the contemporary exile system was brought to an en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2004.

And another reason was that it's important to find out their influence on local early modern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ivilization efforts by the exiles opened a new chapter for early modern education in Jeju Island. In the Chosun Dynasty, a lot of people were expelled to that area,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its local culture. Local children were able to learn from lots of highly regarded politicians and scholars and acquired their knowledge and thoughts.

Secondly, local geographic features turned that area into a place of exile, and the region was of great value educationally as it was full of Confucian culture heritage owing to exchanges between local personages and the exiles. However, there were little efforts to take advantage of that merit as unique resources of education. In the future, ample materials on local exile culture should be prepared, and in order to improve the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of students and instill pride in them, they should be given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by using local history materials. Furthermore, they should learn how to respond to problems they face by being exposed to local history education.

Finally, an exile cultural center should be built, and it's required to put more research efforts into identifying how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n Jeju Island was affected by exiles and acquiring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local Confucian culture and exile culture in different ages.